



#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35호 2013년 11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0033 Fax. 703-462-0033  
e-mail : snu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 제34회 Homecoming Day 겸 서울대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본 행사장에 참여한 동문과 가족들이 즐기기 게임을 벌이고 있다.

## 풍성한 Homecoming Day 행사 미주 동창회 13명 동문 가족 참여

미주 동창회보가 지난 7월호부터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서울 관악 캠퍼스에서 지난 10월 20일(일) 제34차 Homecoming Day 겸 서울대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오인환(문리대 63) 회장을 비롯해 각지에 있는 13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했다. 오 회장은 이 행사에 앞서 11일부터 개별적 혹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는데 이에 관련된 이도 저모를 종합해보았다.

▶본행사는 '제34차 Homecoming Day' 겸 서울대 동문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는 각 분야별로 제1부에서 제2부와 제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교내 캠퍼스로 박물관, 미술관, 규장각 관람과 캠퍼스내에서 간단한 가족 산책하는 것으로 안내 표지판 또는 진행요원이 도우미를 두시었다. 중식은 11시 10분 ~ 12시 사이에 전 참가자분과 가족들에게 도시락, 음료, 주류, 간식 등이 제공되었다.

제2부 행사는 본행사(12:00-12:30)로 국민연세,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오인환 총장 축하사, 손인국 동창회 상임부회장의 경과보고, 제3부 행사(12:30~14:45)는 오연과 여흥을 위한 공연과 게임 등의 행사로 연부 제작생들(현원·사대 7명, 박진희·유대 00, 오원우·사희 3학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공연으로는 서울대 아카펠라 동아리 '인스트로', 서울대 댄스스포츠 동아리 '스핀', 서울대 유대 중창단, 서울대 밴드 등



## 국제협력본부 방문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과 손재욱 차기 회장은 10월 14일(일) 오후 서울대 국제협력 본부를 방문하여 정종호 본부장, 신성호 부분부장, 황정남 기획운영실장과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관에 사직한 Mentoring Program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협의했다. 서울대 국제협력센터 김인홍 소장과의 회의를 했으며 이번 모교 방문을 통해 실무 협의를 갖게 되었는데(국제협력부에서 Mentor and Mentee Application

Forms 을 만들어 구체적 안건의 필요할 자료와 정보를 구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Mentoring Program 외에도 미주 동창회와 모교와 협력관계 사안에 대해 국제협력본부와 황시태와 chamel을 황시태와 하기도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종호 국제협력본부장(국제대학원 교수), 오인환 회장, 손재욱 차기 회장, 신성호 국제협력 부분부장(국제대학원 교수)이 국제협력본부에서 함께 한 모습이다.\*\*\*

이리 '추진세' 등이 각각 공연을 보여주었다. <2인 1조> 게임은 2인 1조 탈리기, 풍금리기, 줄타리기, 막 터뜨리기, 댄스 타임 등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 정종호총장에서는 임광수 총동창회장에게 감사말씀을 비롯, 다른 동문들이 제공한 스투터, 디너집 피아노, LDDAY 송집등, 드림 세탁기 등 부주었다. 오인환 회장과 손재욱 차기 회장에게

tion Forms 을 만들어 구체적 안건의 필요할 자료와 정보를 구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Mentoring Program 외에도 미주 동창회와 모교와 협력관계 사안에 대해 국제협력본부와 황시태와 chamel을 황시태와 하기도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종호 국제협력본부장(국제대학원 교수), 오인환 회장, 손재욱 차기 회장, 신성호 국제협력 부분부장(국제대학원 교수)이 국제협력본부에서 함께 한 모습이다.\*\*\*

My Journey to America<희환> 23인

\*12월 화요일에는 서울대에서 1인만 인원을 위해 1시간 무료 online lecture에 대한 소식을 알린다.

←미주 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들이 오인환 총장과 기념촬영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했다.



## 오인환 총장 방문, 환담과 덕담 나누

'제34회 Homecoming Day' 겸 서울대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본 행사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즐기기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오인환 총장을 비롯한 모교와 차기 동창회 동문들 중 일부가 자리를 함께 했다.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은 "미주 동창회 홍보를 위해서 2014년도

미주 동창회 전국 평의위원회 2014년 6월 26 - 29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Brain Network Symposium과 관악세대를 위하여 별도의 Conference 마련하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오인환 총장 방문 후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따라 campus를 돌아 보았고 특히 규장각에 들머리는 많은 인원을 만나서 규장각에 전 시되고 있는 귀중한 고전자료들을 관람하였다. \*\*\*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와 관악 후원회비가 원동력입니다. 매년 10월 경 3명(30%) 정도가 동창회비를 내주시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절당자성' 이 될실함 요구되는 때입니다. 회비를 보내실 곳은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703)462-9083 e-mail : snuusa12@gmail.com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2014년 6월 28일 ~ 29일(3박 4일)  
Brain Network Workshop,관악세대 동문 피킹, 평의원 회의, Golf 대회 포함  
정승균 혁형

NON-PROFIT  
US POSTAGE PAID  
DUILLES, VA  
PERMIT NO. 446



### 분행사와 방문 일정 이모저모

▶미주 동문 협회 = 총 6회에 달하는 방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이날의 Homecoming Day 행사에는 미주 동창회에서 공식적으로는 13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당일 현장에서 만난 동문들도 많았었고 전체 들은 동문들도 있었다.

▶캠버스 비둘금 야의 행사장의 왼쪽(아우투드 오른쪽)에 자리한 미주 동창회 동문들은 Orange 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어울락-권기현 이영복 이광필 손재욱 이호성(2) 안선아 고경선(2) 오인현 미주 동창회 회장 등이었다.

이 오현(2)은 모자를 끼지 못한 것 같아 참가 동문들을 알아보기 정도만 한 것으로 오전 8시 반 경부터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이 재공한 것이었다.

이날 인사는 했으나 이복을 기어하지 못한 분들은 후속 이복을 위해 들은 동문들이 NI(2), Seattle, LA, KS, 동문들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리 서울

에 나와 제부투미 미주 동문들이 이미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참가 미주지역의 동문 가족들은 13명을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해인 2014년 10월의 셋째 일요일에는 Homecoming Day 행사 가 있는 권익 캠퍼스 비둘금에서 있을 것이다. 많은 동문들에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있다.

### 방문 일정

▶'제34회 Homecoming Day' 서울대 동문 가족화합 한마당 행사 가 열리 오인환 회장은 10월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10주에 걸친 일정을 보았다.

▶동창회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자세한 내용은 12월호와 나누어 게재하기로 한다.

▶11월(금) = 김병흥 서울대 명예교수와 미주 동창회가 매년 실시하는 'Brain Network Work-

shop'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12월(토) = 동문들 마르니에 호텔에서 개최된 대학원 동문회에 참석했으며 최종(월6) 회장과 미주 총동창회의 협력관계를 논의하였다.

▶14월(월) = 개교 118주년, 동창회 개교 67주년 기념식이 모교 문화관 중정장에서 거행됐는데 손재욱(기장대 77) 차기 회장과 함께 참가했다. 기념식 후 만찬에는 워싱턴 DC 동창회 정기연례 회장, 손재욱 차기 회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또한 모교의 대학신문 지도교수와 만나 대학신문과 동창회간의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미주 동문들의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모교 국제협력본부에 방문해 정종호 본부장, 신성호 본부장, 황정남 기획운영실장과 미주총동창회가 최근 시작한 'Mentoring Program'을 주제로 하



### 모교 개교 기념식에 참석

10월 18일 서울대 개교 118주년, 동창회 개교 67주년 기념식이 모교 문화관 중정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 행사장은 오인환 회장과 권기현 워싱턴 DC 동창회 전 회장, 손재욱 차기 회장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사, 국인례, 표창장 수여, 자랑스런 서울대인 발표, 오인환 총장 기념사, 임정수 총동창회장 축사, 축하 연주, 노래 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창장 수여에서는 40년 근속 2년, 30년 근속 5명, 20년 근속 82명, 관학봉사상 4명, 사회봉사상 5명, 장학수기상 5명, 50년 근속, 임정수 총동창회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발전위원장 이윤희 대광사 회장과 자리를 같이 했다.

이윤희 서울대 발전위원장은 동문 100명을 기증하셨으므로 서울대 총장의 Honor Club Member 이다.\*\*\*



많은 참석자들이 덕담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이 역력했다.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과 손재욱 차기 회장은 오인환 총장, 임정수 총동창회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발전위원장 이윤희 대광사 회장과 자리를 같이 했다.

▶16년(수) = 중앙도서관 방학길, 이 자리에서는 'Leadership and Group IQ' 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17주(목) = SMU 관악 Club of the 12th Round에 초대받아 동문 12회 회원과 New Korea Golf Club에서 동문들과 우애를 다지기도 했다.

▶18월(금) = 대명포 소세 프레스 센터 19층 club room에서 개최된 서울 총동창회 편집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손재욱 차기 회장과 함께 참석해 동창회와 동문들의 발행 등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했다.

▶20월(일) = Homecoming Day 행사에 참석하고 SMU 장학빌딩 Veritas Room을 관람했다. 이후 장학빌딩내 중국 음식점에서 임정수 총동창회장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미주에서 이윤환 권기현 이광필 이영복 오인환 안선아 손재욱 동문이 참여했다.\*\*\*



차 례

3. 모교 학술일 명예교수 미주 동창회 사무실 방문/카네기센터 한민회 김형수 상임이사 국민훈장 포상/주필 칼럼<2013년 노벨경제학상과 자산가치>

4. 모교사승/스승의 날 기념행사 소개/주필 칼럼<2013년 노벨경제학상>

6. <동창회 장학>어디까지나 것은 노타/편 <명예 교학 칼럼>어디가 고르다편

7. <설워워킹 칼럼>Dysfunctional Decray/주필선 지문 IN에서 연설

8. <대통령진 참진가>만(월)이아기/손문 시 김갑수라는 등보

9. <사회학 칼럼>장수는 무조건 축복인가/손문 시 김갑수라는 꽃

10. <국제정치 칼럼>어디까지나 것은 노타/편 위한 의원/자문회 어선사기 덧붙은 이유

11. <3.15 동문 동정

14. <동창회장 지역동창회 탐방>

15-19. 미주지역 동창회 소식

20-22. <권익대>원주지 없는 시한폭탄/B형 긴간과 아무 증세없는 인공/사기꾼의 기를 숨/인고/사/도 힘드네. 통일은 무슨/0/미아 키를 버리고/계절성 우울증/일상생활 추구하는 Pmicio-Rock /<문 시>신성수

23. <4. Journey to America>미리나 드림/24. <여행>가도르르가 된다. 한자/20/20일 동인의 시아베리아 횡단<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원 편집위원의 다음을 이합니다. 이윤환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커네티컷 한인회 김광수 상임이사

뉴욕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포상

「제7회 한인회」 및 「이시상, 300여년 한인 동포사회 위해의 공로상 및 한미 유호장훈...」, 차세대 교육태도 크게 힘써

김광수(이하 54 사진) 커네티컷 한인회 상임이사가 지난 10월 5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뉴욕 총독사관에 따르면 김광수 상임이사는 지난 10월 5일 제7회 한인회 남을 맞아 이회원 회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드스테이트 메디칼 센터의 활약과 전문의인 김광수 상

임이사는 지난 30여 년간 의료 봉사 활동사를 통해 우리 한인 동포사회의 이치적 계교는 물론 동포회 유호 장훈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통일연구소, 커네티컷 교육회, 한국학교 등에서 차세대 교육에 힘써준 공로가 평가받아 이같은 포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61년 미국 정부가 제정한 핵포우성 특별 인명 자격으로 미국에 온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뉴욕의 와이키프 하이츠 병



원, 예일-뉴헤벤 병원과 유타대학과 메디칼 센터에서 광범위한 트러블이닝을 받았다. 그 이후는 커네티컷주에서 환과외와 전문의로서 광활한 활동을 벌여왔다.



모교 교수님 및 예고교수

버지니아 미주 동창회 사무실 방문

모교 교수님 (Ideo 50) 명교수 지난 10월 3일 버지니아 버멘나의 미주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교수님 교수는 오인복(문리 63), 최영복(교대 59) 전 회장과 미주 동창회와 서울 모교 동창회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교수님 교수는 상대 50여명 동거들이 워싱턴 DC소재 Korean War Memorial에 매우 높은 중정하는 모임을 일원으로 미주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해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교수님 교수는 과거 모교 재학생 시절에 「소금」으로 유명했다. 워낙 상성에 빠져 주기에 빠졌다. 지난 67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치고 귀국해 세이브스 서울대 교수로 강단에 섰던 그는 「당시만 해도 경영학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고, 이 상대하면 후진국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

교수가 가르쳤던 「생산관리」를 「생산관리」라고 불렀다. 경영학을 가르치던 동안 경영계에 참여하다는 권유도 적지 않았다. 부친이 「남방물산」이라는 수출업체를 경영한 기업인이었다. 60년대 남방물산은 수출 규모에서 국내 10위권 내로 몰락한 규모가 있었다. 주변에서도 언젠가 위 교수가 부친 기업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업인 대신 학자의 길을 택했다.

1976년 서울대에 최고경영학 과정을 개설하면서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COO)를 초청하여 경영에 참여해 보라고 초청하였다. 「외도」를 떠돌지 않았다.

<트립> ▶1963년도 모교 경영대 졸업 ▶1965년 컬럼비아 대학원 MBA ▶1967년 모교 경영대 전임강사 ▶1974년 워싱턴대 경영학 박사 ▶1975-1986년 모교 최고경영학자(AE) 주임교수 ▶1989-1994년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 ▶1997-1999년 모교경영대 전임강사 ▶1992-2003년 한국경영연구원 이사장 ▶1997-2004년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 ▶1999년-현재 한국 전자학회 전 총회 이사 ▶2001년-현재 (재)IT전력연구원 이사 \*\*\*

주말 칼럼

2013년 노벨경제학상과 자산가격 이론



박 순 (배대 58)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미주 동창회보 주필

이제 보편 시장의 효율적 기능(Efficiency)을 논하는 것은 경제학계와 노벨이 자산가격의 가중치에 자기책임이 있다는 주장한다.

파카 교수는 1966년의 주식가격 폭등과 2006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 자산가격의 거품이었고 이러한 사건과 정보의 사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통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거품이 무엇임을 의미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하여 월리 교수는 「자산가격의 결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사상이 효율적 원인으로 제한적이라고 하는 시장의 비효율성(Inefficiency of Market)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월리 교수는 1966년의 주식가격 폭등과 2006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산가격의 과잉인장(Exuberance)을 포함하는 기쁨(Hubble)이라고 설명한다. 기쁨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의 폭발이 2001년 경제침체와 2008년 경제위기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파카 교수는 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리 크게 활동하기 위해 자기 책임지도록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Deregulation)한다. 이에 반하여 월리 교수는 「시장에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된다」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파카의 효율적 시장경제 이론과 월리의 행태경제 이론은 가운데 있어 이 이론이 자산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합당한 이론인지의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자산가격 결정은 모두 자산가격 결정에 부차적이지 못할 이유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며 월리 이론을 활용하는 이론이 요청된다기 주장하였다. 그는 모교에서는 아니지만 자기 상임인 한산은 자산가격의 결정을 일관성이 위하여 동태경제론을 사용하여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다. 즉, 그의 통계 일반화 방법론 (Statistical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이 그것이다. 그의 방법론은 파카 교수와 월리 교수의 이론을 종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교 동창회 「2014 서울대 인명록」 발간 증언정보 수첩

- 서울의 모교 총동창회가 전체 동문정보를 게재한 2014 서울대 인명록 제작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 이제 따라 총동창회에서는 동문 개개인이 직접 고향을 방문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 (총문) 2014 서울대 인명록 「동문주소서 2014년명제인명 1권」 발송 (DND2012 서울대 인명록-동문정보서 400호)

- 인명록 대금은 받으면 후 지리나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 한편 모교 동창회에서는 각 단원 동창회(각과별, 입학연도별, 직종별, 지역별 등)에서 조직이 담긴 정보물들의 현황이 일관적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길 요청하고 있다. 각기수별 ▶회장 상함과 별본 번호 ▶총부서 상함과 별본 번호 등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명(한글)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입학연도	업종연도	단과대학	학과
직장명	부서	직책	직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번	
지대주소	지대전화	이메일	
e-mail	이메일주소	직할( )	자택( )
기타여부	인명록 구입신청		

모교소식



서울대 복싱부 아마 최강

‘범상’ 들의 이번...

복싱 전공자라고 한 함도 없지 않... 올해도 대학선수 종합 우승 1등을 차지하는 모습 감동이다...

“복 짝 말고, 스텝 계속 맡아... 가면 올릴 것 같고 종합체육관 내 복싱 연습장... 서울대 복싱부(RCS-Fist of SUN) 무관 10여 명이 약 20명 작은 공간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량을 보여 동족을 연습했다. 권투 시자 수년이 됐지만 날도 안 났을 기분을 다시는 안 시킨다...”

“연습이 끝나자 오후 3시 신임이 들어오는 오영진(22·자유전공학부) 동물이 헤드기어를 쓰고 글러브를 끈 채 서 뒀어 있다. 복싱부 주장 안영진(25·건축공학과) 동물이 앞선 시자 글 스프레이를 얹는 “피어우드 시자, 킥스(boss)” 라는 신호가 떨어진다.

오영진은 동아리에 들어온 지 4개월 만인 지난 8월 ‘세15회 전국 대학부흥 동아리 선수권대회’ 65kg급에 출전했다. 첫 상대는 같은 선 계급 유전자, 상가대인 잘 갖췄지만 이번이 이번이다. 별다른 불꽃도 없고 체력도 약했던 오 영진은 상대에게 한 팔이 자신의 장점을 파악,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다 치겠다.’는 각오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상대의 머리를 밀어내며 방어하다 그 다음 팔꿈치 위층 후복를 들리던 오 영진은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들었다. 경기와 경쟁심 태 그리고 약력의 승리였다

서울대 복싱부는 단연 ‘아마 최강’이다. ‘연일 최강’인 신승을 데 이어 우승을 거뒀다. 1995년 창단 이래 전국 신인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전국 생활체육복싱선수권대회 등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전국 대학복싱 동아리대회에서는 종합 우승을 7차례 차지했다. 올년도 종합 우승을 거둔 최철 선수 13명 중 9명이 메달을 따내며 우승했다.

부부 중 전원이 복싱인 학생은 아무도 없다. 경쟁력 코치는 “모교가 응원도 공부지원 연구도 하고 전지한 데로써 인연다. 잘

리트 체육 못지 않은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김용호 감독은 “기술자세가 잘 돼 있는데다가 복싱을 배우면 안수하는 체육의 근간이 되는 권투의 자세가 ‘외장 복싱부’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번에도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는 선의에 있는대, 그런 자세에서 해방되는 예기로 아마추어에서는 순간순간 풀이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서울대생들이 소문낸 대로 결정해 능숙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1등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자포자기 또는 다른 눈을 뜨게 된다고 했다.

주요인사였던 “올해 서울대 학생들인 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가장 먼저 접한 것은 ‘내가 잘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기적인 것은 사람이 아니다. 뛰어난 것은 사람을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경기인 권투에서도 팀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선배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팀동이를 도와주는 후배들에게 1대1로 전수하는 ‘별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선배는 가트레 할로로 자신의 기술을 유지하고, 후배들은 기술을 전하며 수개월 만에 빠르게 성장했다.

노봉일(21·인문정보학과) 동문은 “빙 위에서 정적 태도를 견뎌야 한다는 ‘이리 석으로 공격해 봐라. 그리고 내가 티킥을 넣는다’고 조언하며 태권인 상대의 단점을 보충해 주기 위한 상대를 펼친다”고 말했다. 서울대 복싱부의 승리는 “경쟁자를 뛰어넘는 서울대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며 “동문은 ‘복싱이 자랑’을 만들어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이 되면 승부할 때는 권투를 아저씨 뉘냐. 경기를 준비하며 나만 할 게 없을 마신 것처럼 친해지죠.” 부부장 부장(25·법학) 동문은 “우리는 승을 친한 이 마지막 부활을 위한 정갈한 팀이다”고 말했다. \*\*<선일호 인터뷰>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성공 출현

“미주 동창회 및 동문들 총 1만4천 달러 기증”

오랜만 미주 동창회장과 순제 오 차기 회장은 지난 10월 10일(수) 오전에 중앙도서관 박치향 관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는 동문들이 모교 도서관 리모델링에 ‘서울대 도서관의 진취적’ 홍보를 하면서 접수된 동문들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한 것과 고광선(공대 57) 동문이 며칠 후에 추가로 성금한 9천 달러를 합쳐 총 1만4천 달러가 되었다. 이번에 성금한 미주 동창회 및 동문들의 이름과 성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고광선(공대 57) = \$1000 (본인 + 친척 및 인척 서울대 동문 9명 포함) >박성원(음대 69) = \$100 >기욱동창회(외국학생회) = \$100 >오인환(문리과 63) = \$100 >손재욱(가정대 77) = \$100

이렇게 동문들이 기증하면 재학생들이 쓰는 의자에 기증 동문의 이름과 학과를 등에 넣어 의자에 부착하여 영구 보존하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의자의 진장에는 기증 동문 이름을 등에 새겨서 전시하고 있다.

한편 정기회 친 회장은 친척동문(수학부) 대신에 최복근 고(고)도서 30여권을 기증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계속 미



Table with columns: 연번, 학과, 학과명, 성명, 기증액, 기증일. Rows includ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첫 사진은 박치향 도서관장실에서 미주 동문들이 성금을 전달하는 장면으로 왼쪽부터 권기현 DC 동창회장, 오인환 친 회장, 오인환 친 회장, 박치향 도서관장, 손재욱 차기회장, 고광선 동문 부부 주 동문들의 기증을 접수하는 대로 서울대 중앙 도서관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많은 동문들의 호응을 바라고 있다.\*\*\*

사범대 학부제 폐지 15년 학과제로 전환

13년만에 폐지...학과제로

학부제로 신입생을 모집하던 모교 사범대학이 2013학년부터는 학과제로 전환하게 됐다.

지난 10월 23일 오후 당국에 따르면, 사범대학 학사 집행부에 관한 교수회의는 지난 10월 22일 학과제 도입을 전격으로 하는 “201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변경은 다양한 전공분야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와 달리 인기와 학업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상 폐지되는 지적이 계속 조지다. 사범대학 학과제 전환은 지난 2002년 광역 도입체 도입 이후 13년 만이다.

조성안은 외국어 교육 계열 학부제로, 외국어, 영어 교육과, 영어 교육학과, 사회문화 계열(사회 교육과, 역사 교육과, 정치 교육과), 과학교육 계열(물리 교육과, 화학 교육과, 생물 교육과, 지구과학 교육과)과 음악 교육과, 미술 교육과, 미술 교육과 등 10개 학과를 앞세우는 수시·정시로 나눠 낚기 학과제를 도입하는 방침이다.

사범대는 대학 본부에 이 같은 조성안을 회부한 상태로 모교에서 확정되면 교육부의 승인 여부를 지향하고 과제 심도지원에 있어서 스터데nts 들을 WCJ 운영에 맞춰 발전 방향에 대해 사설하고 있는 장면이다. \*\*<한국 대학신문 Daily UN 인용>



외국인 교수·학생 30%로 확대

2025년까지... ‘함께 하는 미래 SU challenge’ 마스터 플랜 발표

모교가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교수·학생 비율을 전체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2014년까지 노벨상 수상자급 세계적 석학 20명 확보를 예정하고 있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모교는 지난 해 말 기준 13% 수준인 외국인 교수 비율을 2015년까지 27%,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

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도 같은 기간 각각 20%, 30%로 늘린다.

전체 학생들의 1학기 이상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수하거나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해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는 국제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100억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 노벨상 수상자급 세계적인 석학 20명을 석좌교수로 초빙한다. 발전위원회의 발의사항을 앞둔 서울대가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 임원들을 위한 자문단도 구성한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모교는 2015년 10월 23일 모교 교수 비율을 2015년까지 27%,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10% 정도

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도 같은 기간 각각 20%, 30%로 늘린다.

모교 교수들 남부 교도소 제주시 대상 강의

### “수인(四人)의 마음 적신 교도소의 인문학” 서울대와 법무부 시작 42명 전원 수료



2013년 7월 26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서울대 변창구 교수들이 제주시 교도소에 강연하고 있다.

“말자의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발자국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중학이 때 처음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계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맞이하며 ‘말은 많았으나 ‘은’은 때는 없고?’ 하던 모습이 생각나 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동훈(44.가법)씨의 같은 무명의 이혼, 맞출림도 열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마 가롤렐 사제이 작가인 렌리 나무렌의 자적인 에세이 ‘말자의 귀향’을 읽고는 감동받게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다.

이날 7월부 모교 교수들이 서울 남부교도소 제주시교도소를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한 인문학 강연의 주제는 지난 10월 18일 끝났다. 서울대와 법무부가 시작한 서울대 교도소의 실형제 인문학 강의는 중간 기차방향 1명 42명이 안 되는 7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수료자를 앞두고 제주시교도소에 이르면 ‘말자의 귀향’ 강연이 나날된다. 말자의 귀향은 작가 나무렌이 남자의 인 박학박을 세이 생명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옮긴 엘리멘트 피카 그림본으로 ‘물어온 말자’를 불로비인 소책자를 만들어냈다. 제주시교도소는 인문학 강의의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했다.

“비난 오면 후회하며 온다는 철학으로 이기기를 버리고 소외의 있었습니. 비난은 어른이 돼서 모두님 가슴에 따뜻을 써야 하였습니. 수인(四人)이 된 것

“말자(四人)씨는 7년 전 제 소가 됐다. 10년째 신고고는 작 ‘억울한 마음에 사법기관을 찾았고, 원망했던 사람’이었다 고 했다. “창상을 사이에 두고 가락을 만나는 시간을 감동까지 이끌었고 그 과정, 그 그림을 간직할 제 지평까지 살아왔다” 고 했다.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이번 강의의 통해 나의 의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강한 제주시교도소 ‘경순’과 ‘세상’의 다른 사람’을 배웠고 했다. 그리고 ‘기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과 가 말과 한 인문학 강의의 열매가 맺어 줄 것이다. 배울이 좋은 저로서는 무슨 영광을 하지도 없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록 말했지만, 수료 후에 그들이 돌아갈 꿈을 꿀 수 있게 된 이음흔의 말이다.

법무부는 녹화한 모교 교수들의 중 일부를 내년부터 전국 50여 교도소 수강자들에게 보여 줄 예정이다.\*\*\*조선일보 인용\*

고국사회 칼럼

### “의원 수감채우는 경찰 한국에는 왜 없느냐?”



최정철 (상대 68)  
전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교통위원 겸공대표

찰시를 습격하고 순사를 죽인 사람은 오늘날 독립운동자가 됐다.

광복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크게 나이지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공산주의자 처벌을 목적으로 일제경찰기 경찰이었던 상당수 순사가 경찰 간부로 채용됐다. 각종 부정부패 등이 경찰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경찰의 정경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고, 그때마다 경찰이 시위 현장 등에 동원될 경찰은 정경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같은 역사와 배경 속에서 공권력을 유지하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원형의 정경은 일본 제국이니 다. 독재정치가 아니라. 민주정치에 의해 선출한 후의 국민의 정부다. 당리당리 민주 정부 공권력은 ‘당리당리’가 아니라 ‘공리공리’이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했지만 공권력의 권위는 바로 서야 한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판한 기법으로 이끌어 낼 수 없다. 현재의 경찰의 강경처를 할때도 공권력을 할때도 이를 세칙한 할을 정서기. 기법도 수감한 재소자들은 ‘경순’과 ‘세상’의 다른 사람’을 배웠고 했다. 그리고 ‘기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과 가 말과 한 인문학 강의의 열매가 맺어 줄 것이다. 배울이 좋은 저로서는 무슨 영광을 하지도 없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단도 평범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 비록 말했지만, 수료 후에 그들이 돌아갈 꿈을 꿀 수 있게 된 이음흔의 말이다.

공권력이 수호를 당하는 일은 물론이다. 지구대까지 파출소소재에 출동 위한 민원이 경찰관을 불렀고 기쁨을 부르는 일은 흔하게 보습니.

또한 경찰이도 때때로 쓰면 악을 일러 보니 무조건 시비부러 나가는 시의 풍토도 사라졌다. 공기요원의 신인 사수 출근거지 횡행과 그 예. 환각제 판매가 늘어난 복식에 따르면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부터 법질서를 엄격히 집행할을 성취했다는 소관보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총리였던 도모니노스로서말을 막고난이 더욱 체했었다. 우리나라 경찰이 언제 범죄를 일으키고자 못한 세계적 거부를 신고함으로써 체포할 수 있을까.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다. 권위주의 정경에서 경찰의 권위가 흔들린다.

이제적인 이용이 있다. 과거 일제경찰이 순사는 한국 국경 독립정서는 타도도 강경이었다.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하고 강제 징용장자를 모으는 일인 시시 통치적 앞잡이였다. 당시 정

### 입학정보 웹진 ‘아로리’ 개설

‘아로리’는 순 우리말로 ‘지인(知人)’ 혹은 ‘지식인’을 뜻한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웹진 ‘아로리’는 입학지원 정보와 응시과제와 생활한 서울대 학생들을 담아내며 한 호응을 얻고 있다.

모교 입학본부는 지난 5월 입학정보와 대학안내, 전공 안내 등의 정보를 담은 웹진 ‘아로리’ (<http://smnor1.snu.ac.kr>)를 개설했다. 입학지원과 입학생활 관련정보 모교 구성원들의 입학전형 현황과 신입생들의 생활 모습, 신입생 인터뷰, 면접 및 구술고사, 전공조사 기술문제 등 생활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모교를 웹진 ‘아로리’를 개설을 시작으로 입학전형에 필요한 각종 학생과 학부, 모교 조사 등과 관련한 소통을 마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서울대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제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로리”는 입학지원 정보와 응시과제와 생활한 서울대 학생들을 담아내며 한 호응을 얻고 있다.

“입학전형” 입학정보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입학지원 정보와 응시과제와 생활한 서울대 학생들을 담아내며 한 호응을 얻고 있다.



아리(말과후 하교?)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로리”는 입학지원 정보와 응시과제와 생활한 서울대 학생들을 담아내며 한 호응을 얻고 있다.



# Dysfunctional Democracy



이창철(법대 57) MD  
Shepherd 대 전 석좌교수(국제  
정치학·민주 동향회보 논설위원장)

많은 학자들이 이제까지 민주주의와 경제를 별개로 보았으며, 민주주의와 경제학은 지구에서 사라질 듯이 되고자 예화하였다. 소년인 '이탈라' 등으로 명명된 정치 붕괴와 민주주의 혁명을 외치는 민중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주의 경제제도도 요구했다. 그 이후로 붕괴되는 이라크 정부와 같이 권력에서 쫓겨나고, 리비아 리비아 대통령이 권력에 있어 놓았으므로 이프리와 그의 독재자들도 Liberico Charles Taylor와 같이 국제법에서 추방되고, 이라크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이라크의 정부를 몰아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세계에 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한편 많은 독재자들은 지구에 정권이 민중의 의지로 사라져 갔다. 러시아의 Putin과 민주주의 지도자로 등장하였으며 '죽어가는 집으로 돌아오는' 바티칸은 민주주의로 다시 정권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하긴 역사상 가장 추한 독권의 Hitler도 사후에는 인기가 있어서 부르고 댄싱이 되었으며 Putin도 신권을 탄생시키고 대대권이 되었다.

이렇게 현재의 민주주의는 사실 이론적인 면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정치인 민주이다. 물론 대동맹이 선포되었지만 과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을 위해 존중하며, 국민에 헌신한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이상적인 민주국가라는 실지시킨다는 것은 그로서 쉽지 않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 경제는 첫째, 국민 국가의 수단이 경제적인 것이다. 국민 국가가 있어 다른 다수의 지고 동맹은 결코 조성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세력 소수국가에서만 실현되어 왔고 그 지고 성공하지 못했다. 사 할렘의 가장 큰 인물은 Socrates와 Plato는 민주주의의 중추(軸心)로서 '대동맹'을 지고 바꾼했다. 민주주의가 가장 인종적으로 소위 민주 모범국이라는 미국도 현재의 회의에서 공화당 비록 Tax(Enough Already) Party 계열이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미국 경제는 인종적으로서도 기를 다져서 못 하고 있으며 'Dysfunctional Congress(못되는 국회)' 로 불리고 있다. 양당의 의원이 TV 뉴스 프

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자기네 반공과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위원이 당선되었는지 궁금하다. 43명의 의원은 각 의회 구역을 담당하는 선거구인 즉 의회에서 정파 때문에 소위 정치 당파의 수혈 때 선거구을 인위적(gerrymandering)으로 만들어 내다주 국민 여론과는 상관이 없다 자기 구역, 자기 자리보존에 만 급급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기 구역,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집단의 대변인 다노릇을 하며 재산축리는 수가 많다. 얼마 전 회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 대립에 따라 재정지출을 거부로 미국에서는 80년대의 공화당이 경제 인시투류(tur- loan)가 되었으며 담담공화당과 국민 보전소 들이 이익적으로 사투를 붙지 못할 바 없다. 민주당은 다수가 지배하는 정지만 내다주게 하는 것은 바람은 없다. 그러나 소수가 자기이익을 다 주장하며 대투 싸움에 빠지고 만다. 공화당에서는 '민주의 빛'과 '이익이 우선' 공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학을 바쳤고의 예수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십자가를 짓고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 다수의 의견을 거스리자, 따라서 다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으나 결국 의사가인 John Locke는 결국 불리를 주장하고 프랑스의 Montesquieu는 삼권분립을 수립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는 이런 권력분립 제도를 이용하여 오히려 '소수의 빛'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행정과 입법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30여 정주제를 지지할 만큼 수 있다고 하라는 공화당이 220여 의원을 갖고 있다(공화당 220여, 민주당 200여)이다 34이 미이 있음.

▶공화당 의원인 John Boehner의 의망으로 하원을 이끌고 있으나 공화당 당원 중 40% 여의 TEA Party 의원들이 veto가 큰 반항 사투를 하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100여 중 55를 차지하며 민주당은 군법이나 상원에서는 filibuster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상원에서는 발원권을 얻은 후에 계속적인 지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연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cloture가 필요하다. 60명의 상원이 지어야 한다. 미국의 41명의 상원원들이 있을 할 때를 50명대의 의원이 찬성하는 법안도 제할 수 있다. 바로 그제 9월의 텍사스 공화당 상원 Ted Cruz가 '오마라 건강보장법' 입법을 반대하여 위협적인 상원이 지어졌다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humpinny' 일이라는 이름. 이런 상원원들이 있을 할 때에 이념을 선택하며 국가정치를 이바지할 때는 때에 맞게는 못 하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로 볼 때 미국과 상당히 싸움을 벌이며 정부가 입법부로서는 싸움을 못

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있어 국민의 선출임에도 보릿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적행위를 하는 의원도 있으나 한학사가 적이었다. 아마 이면 민주주의의 본래정신을 예상했던 Platon은 "후유 인간 정치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philosopher King)이 국가와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 고 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Rousseau는 "종교는 정복의 대수결로 정하는 것이다. 정복 사회와 국가가 있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는 학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는 어떻게 성공을 가리나하며,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general will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계를 보면 정적 지도자와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제정되고 생각하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경제는 둘째 문제로는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전국 227년 이 지난 현재 미국은 자유를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지금도 여정들은 자신들에게 평등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많은 자유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진보 정치인들이 자유를 약속하지 않고 행동, 특히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평등을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는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과 진보파 지지자들은 과거 자유를 얻어낸 사회적 경제 개혁을 반대하며 경제적 대평등을 지향한다. 그러나 자유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자유와 평등, 임금문제, 소득 문제, 재벌 문제 등을 단계적 해결하느냐가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셋째, 경제는 세 번째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자유와 권리의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가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후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유와 권리를 뒷받침하고 안보를 중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로 아마겟 미국 시민권자인 Padilla와 Hamdi를 테러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전범의 형을 당한 미국인 실사도 화의 신분이 제국수재다. 또한 최근 National Security Agency의 비밀 테러를 베를로 러시아도 두후만 Eric Snowden의 주장에 의하면 NSA가 많은 미국 시민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시민들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적이다.

▶결국 인권위원회나 위헌도 테러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는 면 인위화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할 수 있다. 결국적으로 미국의 자유 민주주



고국 동문 민주 동정

# 조운선 장관 UN에서 연설

"일본, 위안부 문제 철저치 사과하며" 위안부 피해청취 달...  
정 참관 연설, 특별 헌영...  
의적과 책임과 자기 호소

책임 있는 이행 조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당시국의 사죄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특정 국가 사이의 단순한 한미 분쟁이 아닌 국제사회의 더 깊은 관심과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조 장관은 10월 12일 오전에는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한 후 기림비를 세운 후 대동맹인 폴리(Lex) 비록 카운티 헌인 공화당 위원장 등을 만나서사와 말

을 했다. 위안부 기림비는 2012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sex-slavery)'로 강제 동원된 한 국·중국·한국계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는 의도로 지난 9월 세워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월 9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때에 대한 시 연설을 한 것도 처음으로 고 여성들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혼자나 의원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워주는 한 많은 탈출을 해준 태 역사를 기록하고 자축적인 지지와 열조로 당부했다. <민주

▶조운선 장관은 연설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 할머니 중 한국인 생존자는 56명뿐이다. 무주 10대 이인소는 신적 강제 동원돼 상흔을 돌아 무서 10 - 20명대의 군대에 했 고 감옥에 죄수처럼 생활했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시민들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적이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때에 대한 시 연설을 한 것도 처음으로 고 여성들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혼자나 의원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워주는 한 많은 탈출을 해준 태 역사를 기록하고 자축적인 지지와 열조로 당부했다. <민주

▶조운선 장관은 연설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 할머니 중 한국인 생존자는 56명뿐이다. 무주 10대 이인소는 신적 강제 동원돼 상흔을 돌아 무서 10 - 20명대의 군대에 했 고 감옥에 죄수처럼 생활했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시민들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적이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때에 대한 시 연설을 한 것도 처음으로 고 여성들이 말했다.

조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때에 대한 시 연설을 한 것도 처음으로 고 여성들이 말했다.

권단회의차들을 조선회아 한다. 조운선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과는 각각 위안부주의의 뜻과 맞을 않기 위해 공부하며 하며 정치를 참여에 나서야 한다.









민주 동문단체 및 동문동정(일부 중앙·한국외대 인솔)



민주 동창회보 배수 주필

‘통일생각’ 워싱턴지부 공동대표 선임

‘통일생각’ 워싱턴 지부 창립 위원회 전 중반 “인구 8000만 인구를 가진 대국인 58) 주필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통일생각)’ 워싱턴 지부가 지난 10월 3일 발족, 민주 동창회보 배수(필명 58) 주필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통일생각 워싱턴지부’는 이날 버지니아의 한인장 우대옥에서 발족식을 가진데 이어 류우익(필명 69) 전 통일부 장관 장관 장영희를 개회했다.

워싱턴 지부 상임대표는 존 유선 친민주평등 중앙 상임위원 이종연의 공동대표로는 배수

주필 외에 강수일 워싱턴 평등위원회와 민병기 일천만 이산가족회원의 워싱턴 지회장이었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정부의 문부총 상임대표와 류우익 전 통일부장관, 강도호 총장사, 통일교육 퍼지니와 한인회장 등이 참석, 지부 발족을 축하했다.

지난 해 6월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주도로 서울에서 설립된 통일생각은 ‘통일 한국’을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통일기금 조성과 통일 연구, 교육 등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LA와 시카고, 델라웨어 지부가

↑ 왼쪽에서 세번째가 류우익

(필명 69) 전 통일부 장관이다.

이날 모임에는 이남 ‘통일생각

’을 주제로 강연했다. 배수

주필은 이날 참석서 못했다.

전날였다.

류우익 전 장관은 ‘통일생각

’은 ‘강연에서 “역사의 발전적

회복을 위해 통일이 한반도 문

제의 정답이며 인구 8천만 필

의 대국이 된 통일 한국은 한

반도 미래 세대의 불우조선”

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 장관은 통일 준비에는

통일 의식의 고취와 재원

마련, 외교 강화, 탈북민 포

용, 제도적 대비 등 다섯가지

사항을 제시한 뒤 “발족 노력

만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으려

다. 앞으로 소관할던 지급 행

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LA교차로 한곳 하기환 동문 이름 명명

하기환 스퀘어 명명 -LA 시 의회 서 결의안 통과

캘리포니아의 LA 한인타운 내 교차로 중 한 곳이 동문 하기환(공대 66 사진) 전 LA 한인회장 이름을 명명했다.

LA 시 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월서 클리버드와 비몬트 에비뉴 교차로를 ‘하기환 박사 스퀘어(Dr. Kee Wan Ha Square)’로 명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 의회는 LA 교차로에 이름 상징할 수 있는 도로 표지판 설치

도 시켰다.

“하기환 박사 스퀘어”는 히브리어 시 의장과 탈 라본지, 미치오에필의 이름이 공동 발의해서 이뤄졌는데 이제 스퀘어 제막식 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010년에는 올림픽과 노르딕 단교차로가 미국 한인 올림픽대이명 김예림(공대 85) 새미 리 박사 스퀘어로 명명된 바 있다.

LA에서 한민족인 회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하기환(65) 동문은 교대공대 전기공학과를 거쳐 미국산대에서 석사 석사공모도 석사 학위를 받고 UCLA에서 공학박



사 학위를 받았다. 하기환 박사는 LA에서 한인회장과 노르딕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배경미 동문 KCC차밍클래식 개강

배경미(유대 85) 동문이 누저지 KCC 한인동포회관(회장 오계은)에서 지난 10월 3일 ‘오계은 차밍클래식’을 개강했다.

상임대표 유대 김요술은 유일한 배경미 동문은 ‘차밍 클래식’ 강좌가 클래식 음악인들을 위한 최고의 교양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매달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까지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열리는 강좌는 클래식 음악에 걸친 고전문학의 소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종의 인성전환도 KCC다.

“음악계”부터 ‘병곡’강상”, ‘적극가와 만남’, ‘악

기와의 만남’, ‘연주자의 매너와 관객의 매너’, ‘클래식 음악 연주회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교과과목으로 꾸미며 다양한 강사로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배경미 동문은 “클래식은 마음의 양식”이라며 “클래식 음악의 중요성을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컨, 예고, 모교 음악에서 오보에를 관공하고 배스는 합대에서 작사취학할 때는 배 동문은 연세대와 국민대·서경대·세종대·홍익대·성명대 등에서 오보에와 함께 실내악도 가르치며 교육자이기도 하다.

“클래식 오보에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이다.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으로도 활동했다. 3년 전 도미해 누저지에서 정착한 배 동문은 지난해 정성준 연주자를 지도 구성된 ‘D’양상원”을 창립해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의: 201-541-1200(교한 102)\*\*\*



NU 호림영문출판 이시진(문리 54) 대표

고국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한국자를 알리는데 적극적

누저지에 후원 영문출판사

(Hollym International Corp.)

를 경영중인 이시진(문리 54)

대표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시진 대표는 “제27회 해외

날”을 기념해 지난 10월 11

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문화

재단보림회의 강당에서 열린

‘세종문화 발전 유공자 시상

식’에 참석해 영예의 상을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또한

영문출판사를 설립해 36년간

미국에서 도서 발간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에 앞장섰던 공

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 참석차 지난 10월 1일

한국으로 떠난 이 대표는 미

주 한국인구의 절반에서

“고국정부로부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한

글 출판은 미국에서 한 미국내

첫 번째 영·한·미 이중언어

이시진으로 우수한 한국작품의

영문판 출간에 더욱 매진 하

했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영화로 제작해 무려 1천230만 명의 학생의 관심을 돌린 화제작 ‘왕의 남자’의 원작인 희곡 ‘이’의 영문판 출판을 맡아 화제가 됐던 바다. 이 대표가 한국의 우수 작품을 미국에서 알릴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노벨문학상 후보가 되려면 미국 출판 기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969년 도미한 이

만 14대째 모교와 대학에서

미국에서 유학한 뒤 미국에서

문 사서로 일하며 1977년 호

림영문출판사를 설립해 지금까

수출한 한국어 시책을 형

문으로 출판했다. 특히 이 대

가 기획한 ‘미국에서 사는

사’는 제작은 한국에서,

출판은 미국에서 한 미국내

첫 번째 영·한·미 이중언어

이시진으로 우수한 한국작품의



이시진 동문 현악4중주 창단서 연주

세계무대 향해 외기향할. 클라

리스 현악4중주단 창단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이시진(말

연주)은 지난 10월 20일 비경

필드 소재 누저지 만나리에서

시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클라리스 현악 4중주단”은

유일 음악계 정기와 함께 음반

발행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

도전을 낸다. 작곡자, 창단

단원은 바이올린 이시진·조진

이, 비올라 미쯔루 쿠보, 첼로

4명체로 구성된다.

제1바이올린을 맡은 이시진

동문은 모교 음악계 정기 음

반을 비롯하여 후 누영글랜드

콘서트비올리니스트 석사 학위

(MM)를, 콘지 음대에서 아티스

트 디플로마를 취득했다. 이후

스탠퍼드 뉴욕주립대학(SUNY)

에서 박사 학위(DMA)를 받은

학부이다.\*\*\*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시 조제길(사대 61) 의원

###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 고국에 기증

‘80년대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 한국 기증... 조제길 시 의원, 지난 10월 말 모두 보내

캘리포니아의 세리토스 시 의원으로 재직 중인 조제길(사대 61) 박사 부부가 1980년대에 발행했던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이 폐간 22년 만에 한국에 기증한다.

조제길 시 의원은 지난 9월 25일 ‘한국에 있는 5.18 기념재단’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관해왔던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 원본을 10월 말 한국으로 보내 영구보존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저널 뿐만 아니라 당시 미주에서 수증한 한인회 운동 관련 자료와 기록물도 함께 기증했다.

유세복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있는 5.18 기념재단은 조 의원이 기증한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과 기타 자료들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물’로 분류해 보존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정구세이 이후의 한국은 급부세이던 언론포해함을 주도하면서 광주시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주 뿐만 아니라 유대와 호주, 한국에서도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을 구독했으며 한국 국외에서 대정부 질문 자료로도 언급되기도 한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자료기록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5일 LA 소재 민족학교에서는 1980년대 남가주에서 발행된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의 한국 보전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함민택의 민주와 운동에 대해 주로 다뤄진 유진기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은 10월 말 한국 5.18 재단에 기증되어 월간예가 공개됐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당시 발행편집인 조제길 세리토스 시 의원.

조 의원은 “수십 년을 보관해오던 자료를 떠나 보내려니 아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 당시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을 사해왔던 한인들을 초대할 환송 행사를 가졌다”며 “당시 구독자들이 많이 참석해주어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10월 5일 오후 3시 21분 유세복(300 S. Crenshaw Blvd.)에서 열렸다.\*\*\*

### 오인해 박사 논문

### 재외동포재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



‘세미 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양식 : 장소심리학적 접근’ 논문

남가주에 거주 중인 동문 오인해 박사의 논문이 재외동포재단 선정 우수작으로 선정돼 화제다.

오인해 박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세미 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양식 :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작성, 서울대에서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지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남가주 폴리테크에 살고 있는 오인해 박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세미 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동양식 :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작성, 서울대에서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지리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오 박사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할 것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 관련된 재외동포 더욱

←오인해 박사가 우수적으로 선정된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역시 논문을 준비하면서 지나치게 쉬운 사소한 글감들 하나하나 박사 학위 주제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북한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인들이 북한관련 인권문제 등에 의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이 유가 증명돼 박사 학위 주제를 미주 한인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결과, 미주 한인들은 북한 관련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장소 방문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변의 위험에도 북한인의 개성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위 수여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발표해 학위 수여되는 심사위원회 재외동포 관련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번 오인해 박사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우수논문상 박사 각 200만원, 석사 각 1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이 수여되며, 재단은 학술회의 등을 통해 수상자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KOTRA 업성별 본부장 신간 출간

“브랜딩 쉽게 공부하세요” 브랜딩 실용적 지식 설명서

업성별 코트라(KOTRA) 북미 지역 본부장이 브랜딩에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지금 당장 브랜딩 공부하라’ (서진)를 출간했다.

한류 및 한국 브랜드를 알리고 부각시킬 임무를 국가 브랜드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노력하는 업성별 본부장은 브랜드 약방백과 1권 브랜드 전략학까지 288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업 본부장은 이 책에서 “브랜딩은 다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동네 가게이든 야기 자기업과 친근함은 내세우며 프랜차이즈와 차별화 하는 것, 학두기 및 경쟁 업체는 성명탈출 등 나름의 컨셉을 잡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인식시키는 행위가 모두 브랜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코리아 스타”를 찾아오는 한국의 투기가 바로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 본부장은 “미국 동남부 논의가 한창이던 1980년 후반부터 미국에 브랜딩 EB 본부 및



브랜딩 무역관 등에서 7년간 활동하며 럭셔리 브랜드의 본고장인 유럽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스타일과 유엔레벨에서 컨설턴트, FTA 협정 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던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현재 뉴욕에서 근무하면서 한미 FTA를 활용해 대한민국 브랜드의 북미시장 진출을 견주지워주고 있다.

서울대 졸업 후 편입생 알토미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재미 과기협 제10회 YGLTC

### 내년 1월 Houston에서 사흘간 개최

미주 지역 젊은 한인 과학기술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10회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YGLTC 2014)’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개최된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이명준 교수(공대)가 주최하고 한미과학기술센터(KISCO) 수석 연구원이인 KSEA 차세대 리더가 되었다. YGLTC 2014 라는 주제로 열

리는 이번 행사에 200여 명의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대학원생, 학생 등 1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30년 역사의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KSEA는 1.5세와 2세 과학기술 지도자 지망생들의 연구성과 발표도 포함된다. 올해의 테크닉 발표 프로그램으로는, 전 분야와 생명공학, 생명공학, 전

↑ 지난 1월 LA에서 개최된 제9회 YGLTC 참가자를 모습이다.

기전지 및 컴퓨터 공학, 과학과 사회적, 의학 등이 마련된다. 지난 200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YGLTC는 그동안 LA와 뉴욕, 샌디에고, 달라스, 워싱턴 DC, 시애틀 등에서 개최됐다.

참가 대상은 KSEA 회원이거나 산학기회 희망자로 과학기술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이다. YGLTC 웹사이트(www.ksea.org)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한다. 심사 후 대회 참가가 허용된 신청자들에게는 숙박비와 조식비가 지원된다. 문의: ygltc@ksea.org \*\*\*



뉴욕 예술가국악연구회 서병선(음대 66) 회장

### 제28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개최

1만 8천여 달러 모아 역대 최고액 기금 모금 실적 올렸다

뉴욕예술가국악연구회(회장 서병선·음대 65)가 지난 10월 6일 오후8시 JHS 189 강당(주요의 후원)에서 400여 청중이 모인 가운데 제28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를 가졌다.

주목받은 한국가곡과 세계 명가곡을 독창과 창창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사였다.

소프라노 율혜빈, 파리본 김성훈, 테너 김진욱, 서병선 등등이 이날 무대를 장식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김

성욱 등은 특별히 비영리으로 '부산 나눔'과 '오 나의 태양'은 콘서트장이 우와와 같은 박수와 열광으로 가득했다. 8경기에도 역대 최고인 1만 8천여 달러의 성금이 담겨 해 탈북자 구제에 긴요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동포들과 같이 이질치는 음악회였다.

지난 7월 대륙에 온선해된 9명의 탈북자들이 자유의 땅 남한으로 보내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날과 모두 경제 특혜를 온 한국인과 전세계인들이 주목을 아끼려고 크고 분노하며 규탄했다. 복한 북측은 극단한 굶주림의 고통을 건

### 서울대 미주 동향일보

~달복자 음악 기금 마련 음악회에 참가한 음대 동문들이 함께 나와서 무대 가락을 열창하고 있다.

기 못해 먹을 것을 찾아나선 무고한 탈북자들을 20만명이나 유해하며 처참한 민간인 학살인 양민학살의 만행은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다. 3월에는 북한 남측에는 400만여 주민을 굶겨 죽여가고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해 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갈수록 최악의 공포에 떨며 백인 인질들은 여려분의 따뜻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달복자 구제는 내 월육 생명구제의 인류적 사명이야 전학한 국제 공리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류역사상 유래없는 잔악한 북한은 국제법률의 비극을 만천하에 고하는 역사적 과업의 날이 끝나고 있다.

그동안 뉴욕 동포들의 감동적 헌포는 10여만 탈북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왔다. 그동안 이윤외교도 모금할 성금은 1,400여명을 한국과 미국으로 구출시켰다. 탈북자 구제에 촉발시켜 헌신해 온 장기원 선교사님의 사명을 담은 두리하나 USA(이사장, 조영진 목사)로 전달된다. \*\*\*

<뉴욕 예술가국악연구회 회장 서병선>



### 홍용식 박사 여행기-2 신간 출간

베트남에서 거주 중인 홍용식(공대 51)박사가 부인인 문학박사 민병희 여사와 함께 '우리들의 온화 여행기 2'를 최근 펴냈다. 여행기는 지난 2010년 12월 '우리들의 온화 여행기 1'을 펴낸 이래 두 번째 출간이다.

홍용식 동문은 모교 공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후 1969년 도미해 미국노이데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보잉항공사와 에어로 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 후 1974년 고국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우주 담당 부소

장으로 재직하다 대한항공 기술연구소장과 인하여 항공공학박사 교수로 재직했다.

정년 퇴임 후 역시 인화대 영인교과에서 정년 퇴임한 영인학박사 2003년 다시 미국에 있는 뒤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기록한 사실들을 저서한 책으로 저술한 것이다.

홍 동문의 장남 준서(John) 역시 모교 공대에서 기계공학부와 졸업했으며 현재 미국항공우주 연구원이자 차남 원서(Dennis)는 베지니아주 기계공 교수, 장녀 수진(Ulisse)는 미국인재지원 국립 항공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모교 연광철 교수 리릭 오페라 출연

시카고 리릭 오페라가 지난 10월 13일 '드 엘보'를 시작으로 2013~2014년 공연에 들어갔다.

올해 레퍼토리는 '나비안인', '리 트라비아타',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등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교 음대 연광철교수가 출연하는 '파르지팔(Parsifal)'이다.

리릭 오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공연에서 구르네만프 역으로 출연하는 배시연 교수는 지난 10월 6일 시카고에 도착해 리히에서 참가했다.



서도 마그너 '파르지팔'의 구르네만프를 맡았던 연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해 "사랑과 복수 등을 주제로 하는 다른 리터러지 오페라와는 다른 심오하고 종교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르지팔"의 경우 마그너가 죽기 직전 만든 마지막 작품으로 성령과 성배를 둘러싼 유럽적으로 5년간 가장 긴 연극이다"고 덧붙였다.

연광철 교수가 출연하는 '파르지팔'은 11월 9일 성악 시작으로 13일, 17일, 22일, 25일, 그리고 29일 리릭 오페라에서 공연된다.

올해는 시카고 리릭 오페라(LyricOpera.org)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서용선 교수 뉴욕에서 개인전



'뉴욕' 연해는 김스컬러리 모교 미래 교육을 역할한 서용선(사건)교수가 새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연해는 김스컬러리에서 이진경 개인 전인 제목은 '뉴 워크(New Works)'로 제목이 된 최근 서 교수가 작업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자리로 꾸며졌다.

전시 작품 중 '드레인'이라는 아크릴 그림은 제목 그대로

'뉴워크' 연해는 김스컬러리 모교 미래 교육을 역할한 서용선(사건)교수가 새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연해는 김스컬러리에서 이진경 개인 전인 제목은 '뉴 워크(New Works)'로 제목이 된 최근 서 교수가 작업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자리로 꾸며졌다.

전시 작품 중 '드레인'이라는 아크릴 그림은 제목 그대로

### 참가 조의를 표합니다

▶전경철(공대 55) = 지난 10월 15일 MD에서 부인(성숙배), 부인 친신(박은)이 여의도 배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

정부 당시 연방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다.

▶홍명배(음대 70) = 부친상, 남기주, 음대 동창회 전 회장으로 지난 10월 9일 부친상을 당했다.\*\*\*

### 박영구 동문 Biomarc Art 전시회



생명의 이미지와 신비, 에너지 등을 담은 서양화와 박영구 동문 전시회가 지난 10월5-15일 LA의 비전 갤러리에서 열렸다.

미술 전문지 '비전 아티스트'는 작품에 대해 "유기적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한 비기학적 형태의 표현예술인 바이오파트 오브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작가는 깊은 심화와 광범위한 수주를 대상으로 언어적, 현실적, 상상적의 현실을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소개

때 이루는 유니버스를 완성, 그 안에서 이뤄진 시각과 단정 표현을 시도했다"고 평하고 있다.

박영구 동문은 서양의 화가처럼 수 있는 이미지의 군소와 편린들을 또 그이적인 형상 또는 일부분을 대가로 현실상에서 나의 이미지의 비유를 통해 역설적으로 현실을 표현하거나 인간의 모습도 투영하고 있다. 나의 이미지들은 실물이 나 생명의 돌연변이적인모습을 보여준다 어디엔가 기억에 자리 잡고 있을 형태소들이나 생명을 창조하는 듯한 작은 생명들의 확대된 모습들이 동공처럼 비추고있어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상 의미와 되도록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소개

모교 미래 서양화와 출신으로 전시회개에서 후진을 양성한다 2003년 미국에 온 박 동문은 아랍과 미술학, 그리고 미술 행정, UCLA 국제 교류원 등에서 단석학과 개인전을 가졌다.\*\*\*

FTD인 열악하게 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눈빛을 잘 표현해낸 작품이다. 하얀 이리본을 흰 꽃과 여인과 팔짱을 낀 채 혼자 보고 있는 모습에서 여성의 눈빛이 살아있다.

1951년 서울에서 태어난 서용선 교수는 모교 미대에에서 화학과 역사학 학위를 취득했고, 2009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매달출간 오사카 동지에서도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 1986년부터 2008년까지 모교 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는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모교 이근 교수 하와이주립대서 강연

UN한국학 연구소 '아시아 경제개혁 혁신' 주제

모교 경제학부의 이근 교수가 지난 10월 11일 하와이 주립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아시아 경제개혁 혁신: 중간주도 국가들의 실패원인'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이근 교수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련의 국가들이 중간주도 일련의 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과 이를 가능케 한 전통문화에 대해, 그러나 중국이 개발도상국과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모교 경제학부의 이근 교수는 현재 재직중이던 연구소를 지내기도 했다.\*\*\*

## 뉴욕 동창회 2013년 이사회

### “일하며 배우기”

박상원 (음대 60)  
뉴욕동창회장

지난 9월 20일 뉴욕 동창회에서는 NJ Fort Lee의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 동창회 총회 및 이사회를 열었다.

나는 동창회장으로서 처음으로 말 일인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며, 종전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즐거움 이사회”를 하기로 구상하고, 교육도 즐기면서 공부하는 edumainment라는 말이 있듯이, 이사회도 즐기는 행사로 그 재회를 마련하였다.

강소가 호텔이나 좋은 음식점과 외관을 곁들여 한 시간 동안 이사들간 친목의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나는 부부동반을 장려하여, 부부가 함께 서울대 동창회의 일을 이해하고 참여하자는 취지였다.

외인인 서신 서후에는 친목의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우리의 전통을 잊지않고 전통들은 선비들이고, 선비들은 예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일본의 사무라이인 전통과 다른, 선비의 전통이 반드시 계조났을 문화라고 생각하였다.

총회 시간에 입출소고와 상훈이 주어 졌는데 3인의 공헌으로, 농사 일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아우러진 줄과, 무속에 권위를 더한 액자를 걸어내는 삼살이 매우 희사하여 펼쳐졌다.

특목주 명장은 단가 사설가로 복을 풀고, 권소의 심청가 중 심봉사는 그는 장편을 열창하여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 특별 초청연사로 미주 동창회 오인행(윤리대 63) 회장님께서 ‘제12대 회장단의 중점사업과 Leadership’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의 중점사업으로는 미주 동창회보를 앞으로 32면 color로 비 전국과 캐나다 등 26개 지역에 총 6만700부 배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동창회장 핵심인 network를 구성하고, 권역연대에게 참여와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 유수대학과 교류, Brain Network 사사의 특대 강좌 등 중점사업을 실행하여 동문들로부터 감감을 얻었다.

특히 leadership에 많은 중점을 많이 강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IQ를 높이는 교육제도는 사회 통달에서 벗어나 IQ vs. EQ라는 새로운 지적 영역 강의를 모가 적합한 새로운 영역이 있다.

지금까지는 독일 심리학자 William Stern 이 재창한 IQ(Intelligence Quotient)가 높아야 성공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Dr. Daniel Goleman이 재창한 Emotional Intelligence(EI)에 의하면 80% 이상이 EI에 의해 성공적인 리더가 되고 20%가 IQ에 의한 성공이었다는 이론이다.

Emotional Intelligence 는 자신

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관리하고, 사회성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상호관계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group IQ에 걸맞은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New York Times 베스트 셀러에 1년이나 오른 Emotional Intelligence를 추천하는 바이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group IQ는 꿈을 공유하고, 소통하며(two way), 회원들의 약속과 헌신, 회원들이 나의 일처럼, “남”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서울대 졸업생들의 특징에 대해 기업체들의 조사 결과, 조직 친화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서울대 졸업생들은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 등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팀워크와 인간관계, 리더십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유대관계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고인 중이 라는 예이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재학생은 IQ는 높지만 EQ는 분야에서 사회적, 또 가정적 교육이 잘 되지 않아 리더로서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재학생을 더욱에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think tank인 서울대 동창회가 주주들이 재계인인 삼국 탱크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오직 EQ의 중요도 사제되었는데, 성국 탱크에 대해 think하는 계기도 있었다.

명장의 주제는 회의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이사 동문 가족은 물론이요, 이주부, 송근호, 송근호 박사의 대체의학 운동장을 시연, 실습하였고, 대회의 일에서는 정지 회의를 진행하였다.

골든클럽 이운행(공대 48) 회장이 발의한, 회장 임기 2년과 재임 가능에 대한 회의 개정을, 이 전과 미주동창회 회장이 알아심기구를 만들어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장 임기가 1년이다 보니 일을 알만하면 회장 임기가 끝나, 회장이 동창회 발전에 힘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성에 감응해 발의되었는데, 회의 개정 위원들은 전직 회장단과 현사로 등으로 구성되어 그 발의안을 반대로 되여 있다.

이렇게 해서 초임 회장으로서 첫 일인 이사회를 같이 진행하였는데, 많은 동문들이 이사회와 후관 등을 보고 격려를 해주어 IQ와 EQ를 잘 조화시킨 모임이었다고 자처하고 있다.

특히 큰 곳을 마다 않고 특강을 예선인 오인행 회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고, 풍류를 즐기는 기회를 준 예술인들에게도 감사할 따르다.

지식과 문화 풍류를 가르친 우리 조상들의 선비 문화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하는 리더십 문화임을 느끼고 배우는 행사였다.

일하며 배우는 게 바른 공부이지 않나?  
공부는 할이 없네! \*\*\*



↑ 지난 9월 20일 NJ Fort Lee의 Double Tree by Hilton Hotel에서는 뉴욕 동창회 2013년도 이사회가 열렸다. <윗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오인행(윤리대 63) 미주 동창회장, 뉴욕 동창회 골든 클럽 이운행(공대 48) 회장, <아랫 사진> 왼쪽은 뉴욕 동창회 박성민 회장이 동창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면, 오른쪽은 오인행 회장의 강연 장면이다.

↓ <아랫 사진> 이번 동창회에서는 풍요로운 우리 전통 민속음악 공연했다. 첫번째 사진의 문옥주 명장은 단가 사설가이며 이은소 심청가 중 심봉사 노래는 장편을 열창해주었다. 맨 아랫사진은 국민회 제 3인의 입출소고와 삼살이 춤으로 농사 일의 어려움과 즐거움, 액운을 물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초임 회장으로서 첫 일인 이사회를 같이 진행하였는데, 많은 동문들이 이사회와 후관 등을 보고 격려를 해주어 IQ와 EQ를 잘 조화시킨 모임이었다고 자처하고 있다.



### 뉴욕 동창회 & 학대 동창회

## 추계 골프대회 및 남미 가족 여행

뉴욕 동창회(회장 박상원-음대 69)가 지난 10월 2일 추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또한 뉴욕의 학대 동창회(회장 이종대-약대 65)는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동문 해외의 남미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뉴욕 동창회 = 지난 10월 2일 뉴욕주 Pearl River에 위치한 Blue Hill Golf Course에서 총 42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추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정평한 가을 날씨 속에 32명은

실골프 5명은 부부 동반으로 참가했다.

이날 골프대회를 위해 이진구(농대) 미주동창회 회장, 최진성(공대) 이사장은 보석을 후원했다.

골프대회 후 문들은 Emmet's Castle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으며 많은 동문을 참가 시키고 공대 김정림 회장과 약대 이종대 회장, 자문을 해준 글린의 동문인 사무총장에게 감사말을 드렸다.



↑에드워드 강 전 동창회장(오른쪽)이 박상원 회장으로부터 1등 상을 받고 있다.



↑Lady Best로 선정된 손영희 동문 부인이 역시 박상원 회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메달리스트 = 김장수(공대)  
1등 = 에드워드 강(사대) • 2  
등 = 민준기(공대) • 3등 = 이용

대(약대) • Lady Best = Ms. 손영희(공대) • Close to Pin = 손주원(의대) • 한정수(물리대)  
뉴욕 동창회는 오는 12월 14일

올해의 연말 마지막 행사인 동문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원(음대 69) 동창회장>



▶뉴욕 학대 동창회 = 뉴욕 학대 동창회(회장 이종대-약대 65)가 지난 9월 21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학대 동창회의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인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부부동반으로 모두 21명이 참가한 이번 해외 여행의 남미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와 이와수 폭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브에노스 아이레스 등지를 다녔다.

뉴욕 지역 학대 동문 수는 지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인 리오데 자네이로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아래 오른쪽은 리오데 자네이로의 파글라 바위 산 정상에 이수가르(슈가로드)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2011년 현재 등록된 수만 85명으로 해마다 해외 여행을 예오고 있다.\*\*\*

<글 = 김장수(학대 64)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사진 = 손갑수(학대 59)>





남기주 이대 동문들이 전사회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남기주 동창회

단과대학별 가을맞이 행사 가독

남기주 동창회가 각 단과대학별로 가을맞이 행사들을 다채롭게 가졌다.

먼저 유대 동창회는 지난 9월 14일 LA에서 '2013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또 법대 동창회는 9월 24일 LA의 JJ그랜드 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고 이대 동창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1회 동문 작품 전시회를 LA의 Lee & Lee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각 단과대학 동창회의 행사 이모 저모를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해보았다.

▶유대 동창회(회장 박인옥·음대 65) = 지난 9월 14일 L.A. downtown Colburn school Zipper Hall 에서 유대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올해의 연주회는 ABC (A Beautiful Communication) 대외 상인교 육원(고명희 원장)을 후원하는 자선음악회였다.

이 단체는 개인, 가정 및 모든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화교육과 대화지도자 양성교육,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뇌건강교육

등을 사업 목표로 하며 많은 회복된 인간관계의 열매를 거두어가고 있다고 한다.

유대 동창회는 그동안 아름다운 사색에 힘을 보태고자 올해도 음악회의 수익금 중 2천 500달러를 후원했다.

◀홍무 김양희(음대 77)▶

▶법대 동창회(회장 이서희·법대 70) = 남기주 법과대학 동창회 모임이 지난 9월 24일 LA의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총 12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신규 동창회원 증가 방안과 연말 모임 준비에 관해 자세하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내년의 행사와 모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 동창회(회장 홍선에·미대 02) = 10월 19일부터 LA의 '엘리 갤러리'에서 동문 27명 30여점의 작품들에 대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미술대 동문전은 2000년이후 11년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홍선에 회장을



남기주 유대 동창회 동문들의 정기 연주회 장면이다.

—유대 동창회가 정기 연주회에서 알은 수익금 중 2천500달러를 ABC 대학상담 교육원에 희사했다. 사진은 상금증 전달하는 장면으로 왼쪽부터 박양희(음대 65·부회장), 박인옥(음대 65·회장), 이영미(ABC 대학상담 교육원 대표), 고명희(ABC 대학상담 교육원 원장).

비롯해 강영민·김경옥·김경애·김구자·김순진·김옥경·김윤진·김희자·박다애·박영구·박영국·박



혜순·배유순·백혜란·손남수·송경자·신덕재·신동민·신정연·신영자·윤태자·임그리스·장경은·정동원·한석란·혜해명 등문 등이 작품을 출품해 참여했다.

예년처럼 전시작은 화해하고 다 양하다. 개인명과 조각,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돋 갈상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동문이 내용은 작품이 너무 훌륭 해 미술을 사랑하시는 한인 모두 를 모시고 싶다" 고 설명한다.

홍 회장은 "미국으로 이민 온 연문도, 활동하는 지역도,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전시작을 보면 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 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한다.\*\*\*

◀남기주 법대 동창회 동문들이 지난 9월 LA의 JJ그랜드 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기념 촬영을 했다.

전시회를 마련하는 모교 서울대 동문들의 바람은 한인 커뮤니티 모든 사람이 전시회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다.

"동문전이 열리면 수로 같은 대화 출신들이나 가족, 그리고 원 저들이 오셔서 축하하고 작품을 보시는, 작가의 개성이 묻지 않는다는 작품들이다.

홍선애 회장은 "이번 참가 동문 모두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해오며 나눔에도 적극 세계를 확산하게 주유에 화가들이기 때문에 전시회가 매우 중요하다" 고 말

했다. 전시회를 마련하는 모교 서울대 동문들의 바람은 한인 커뮤니티 모든 사람이 전시회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다.

홍 회장은 "미국으로 이민 온 연문도, 활동하는 지역도,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전시작을 보면 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 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한다.\*\*\*

▶홍선에 회장



남기주 법대 동창회 동문들이 지난 9월 LA의 JJ그랜드 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기념 촬영을 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 가을산행, 동문 포상의 경사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 총대 76)가 지난 10월 19일 가을 산행을 다녀왔다.

이보다 앞서 10월 5일에는 제7회 '세계 한인회 날 기념식에서 이장원(총대 66) 교수와 장수인 회장이 각각 대령봉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경사도 함께 했다.

▶가을 산행 = 지난 10월 19일 가을 산행을 다녀왔다.

뉴잉글랜드의 자랑스러운 사람답게 가을철 단풍을 즐긴다. 10월의 맑은 주말 뉴잉글랜드 동문 가족들이 가을 산행으로 특별한 곳을 보스톤 남쪽 Milton, 작은

농진들이 모여 만들어진 Blue Hills의 환한반 산속길이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모이는 일정이 느긋했고, 놀지 않은 언덕 산은 공명의 울리는 마음을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가을을 쓰고 도보로 일은 원일이 이 서양나라에 첫 나들이 했던 때도 가을이었다.

지난 1883년 9월 19일 보스톤에 여장을 쓴 구한말 고종의 내비 전신 사절단은, 다음 날인 20일이 곳 Blue Hills 지역의 동장봉을 전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은 열기왕성한 20대의 선비 무관들로 압축했던 당시의

1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이 산에 올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이 장수인 회장, 오른쪽이 이장원 교수

조국에 새로운 개화의 길을 열고자 하였다. 한 예로 일찍이었던 최경식은 귀국 후 이 곳에서 본 능가기술의 도입에 절충을 바치기도 했다.

130년 전 선구자의 모습으로 이곳을 찾았던 한인 젊은이들의 꿈을 동문들도 함께 느끼며 걸었다(보령 사절단의 행적에 관하여는 '뉴잉글랜드 한인사' 참조).

장수인 동창회장의 주선으로 모인 동문가족 30여 명이 노동할 동문의 안내로 그리 놀지 않은 정상을 올랐다.

들다 만들어진 고색창연한 천막에서 내려와 보는 경관은, 선비리 가을 산악자 더미로 보스톤



경관이 아름다웠으며, 가까이 Houghton 호수가 단풍 속에 푸른 절경이었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김밥은 산길에 온몸이 든든한 맛을 주었고, 은은한 커피향과 말으며 잘 익은 가을의 과일 맛을 음미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기념사진에 맞는 옷들을 모아 담은 후, 경관이 많은 산악인 동문들은 가을 큰 울림을, 환한반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동문들은 아스팔트 내리막을 택했다.

스키장을 돌아 내려오는 길에서 만난 '시베리아 허스키'들의 눈빛에는 이 곳에도 머지 않아 찾아올 눈 덮인 Blue Hills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보령사절단의 옛 기상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도 빛나고, 동문들간의 따스한 정이 추위로 남아서 모두에게 즐거운 가을날의 아름다움은 산행으로 기억되리라.

▶글 = 윤은선(상대 66) ▶동문 포상 = 뉴잉글랜드 동창회 이장원(총대 66) 교수와 장수인 회장이 지난 10월 5일 '하 나년 세계 한인, 회장의 새 시대'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7회 '세계 한인회 날' 기념식에서 각각 대령봉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제7회 '세계 한인회 날' 기념식에서는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훈·포상이 있었는데 본 지구 소속 동문인 이장원 로드아일랜드 주립대 교수가 대령봉 표창, 그리고 장수인 보스톤 한인협동 단장이 국무총리표창 포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장원 동문은 제비 한인과학기술회회 NE 지부장과 친척 회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장수인 회장은 현재 보스톤 한인협동단 단장, 휘호 보스톤 캠프 오스트리아 단장, 보스톤 한인회 부회장을 맡아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봉사에 애쓰고 있다. ▶▶

▶글 = 이재형 기획위원



워싱턴 DC 동창회

### 장재인동기 음악회 성금 전달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함은선 총대 77)는 이 지역 장재인들의 복지를 위한 금바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31일 콘서트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마련된 성금 전달식이 지난 10월 11일 버지니아 해안레일의 한식당 '한강'에서 이루어졌다.

이 콘서트의 대회장을 맡았던 박유수(콜리대 48) 비무 동창회 초대 회장을 인사말을 통해 "장재인 동기회는 취지에 우리 동료들 뿐 아니라 주주사와 외 사들도 많이 참가해 더욱 의미가 있다. 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꼭조는 콘서트일 줄

1 박유수 대회장(오른쪽)과 함께 함은선(오른쪽에서 두번째) 회장이 수반 오 정애인회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은 정서근 총무

몰랐다. 이같은 행사라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행사로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회 해어 한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은선 동창회장은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 각 층에서 많이 후원해주어 고맙다. 특히 클리어드와 커디스 출신 젊은 음악가들의 진지한 헌

수는 많은 분들께 너무나 큰 감명을 주어 더욱 뿌듯했다. 장애인 동기 콘서트였지만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재인회회 수반 오 회장도 "서울대 동문회가 봉사와 인류애적 행사를 마련해준데 고맙습니다"고 감사했다. ▶▶

이 콘서트의 대회장을 맡았던 박유수(콜리대 48) 비무 동창회 초대 회장을 인사말을 통해 "장재인 동기회는 취지에 우리 동료들 뿐 아니라 주주사와 외 사들도 많이 참가해 더욱 의미가 있다. 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꼭조는 콘서트일 줄

몰랐다. 이같은 행사라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행사로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회 해어 한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함은선 동창회장은 "소외받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해 사회 각 층에서 많이 후원해주어 고맙다. 특히 클리어드와 커디스 출신 젊은 음악가들의 진지한 헌

수는 많은 분들께 너무나 큰 감명을 주어 더욱 뿌듯했다. 장애인 동기 콘서트였지만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재인회회 수반 오 회장도 "서울대 동문회가 봉사와 인류애적 행사를 마련해준데 고맙습니다"고 감사했다. ▶▶

▶글 = 이재형 기획위원



휴스턴 동창회

## 2013 가을 음악회 성대하게 개최 중국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 회장단 일부도 참석

휴스턴 동창회(회장 이호성 공대 72)가 지난 10월 5일 '2013년 동창회 가을 음악회'를 휴스턴 중앙 장로 교회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가을 밤 아름다운 피아노 3중주와 선율, 오케라 아리아와 합창을 들려준 출연 동문들을 비롯해 참가해서 함께 해준 동문들과 우리 동포들에게 감사했다.

특히 이날 중국 북경대 휴스

턴 동창회 회장과 총무 등 회장단 임원들 중 일부가 같이 해주어 휴스턴 동창회의 국제교류 노력의 시작을 보여준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었으며 내년에도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이 행사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10월 5일 토요일 밤 마련된 본 음악회에는 150명 이상의 동문, 동포들이 참석해주었다.

이호성 동창회장의 개회사와 이

! '2013 동창회 가을 음악회'에 참여해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음악회가 끝나고 임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이재호, 김건호, 유한나, 탁순덕 전 동창회장, 이호성 동창회장, 김주환 동문.

제호 중앙장로 교회 담임목사의 지도로 시작한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의 첫 순서로 피아노 3중주(바이올린 - 최윤정, 첼로 - 이화영, 피아노 - 이우진)의 벨레스크로 시작하였다.

기악에 이어서 푸치니, 베르디 등의 성악 오페라 아리아(소프라노 - 정찬이, 소프라노 - 장수연, 바리톤 - 이재석, 테너 - 유병진,



피아노3중주 - 김연희)가 그 다음 순서를 이루었다.

1부의 끝곡은 4명의 성악가가 함께 한 친숙한 선율의 라트비아 찬송이었다.

1부가 끝나고 인티미션에는 미리 준비된 다과와 함께 모비예 마린들 미술품(연운정 화백, 큐레이티브 안지수)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다섯합창단 Imitatio Chorale (지휘 - 주희재, 피아노3중주 - 정민욱)의 바하의 곡으로 막을 연 2부는 합창에 이어, 선악가들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가곡으로 마련되었다.

마지막 곡 '고향의 노래'가 끝나고 두번의 기념박수와 행렬로 마무리 오른 출연진은 정복강 대령을 열창하였으며, 이어진 두번째 행렬에서는 격식과 함께 'J에게'와 '고향의 봄'을 부르며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총무 김건호(공대 91)>



##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와 교류

올해 음악회는 이호성 회장의 뜻에 따라, 동문과 휴스턴 지역 동포들 외에도 특히 International Alumni Association과의 cultural exchange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임원들의 노력 - 특히 음악회를 직접 지원하고 준비한 이재호(External Affairs, 공대 83)

동문이 이같은 행사를 하기 전 중국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 측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의 회장과 총무가 그들 동창회의 대표로 이처럼 음악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 회장은 Zhiqiang Liu, Chair of PHIAH,

! 휴스턴 동창회 회장단이 등을 음악회에 참석해준 중국 북경대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 총무 Mingqo Cai, 이호성 회장,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 회장 Zhiqiang Liu, 이재호 동문.

총무 Mingqo Cai, Secretary General of PHIAH)의 두 사람으로 그들은 음악회에 참석해주어 앞으로 우리 동창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나누기도 했다.

이 날 행사 후 북경대 휴스턴 동창회 참석자들로부터 이번 음악회

악회가 무척 좋았고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여, Harvard, Rice, University of Texas, Texas A&M 등 보다 많은 휴스턴 지역의 동창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무 김건호(공대 91)>





## 시카고 세종문화회

## 시카고에서 세종상 수상작품 연주회

세종문화회(이사장 김호범·상대 69, 사무총장 루시 박·의대 69)가 주최한 '2013 세종상 수상작품연주회'가 지난 10월 5일 Chicago 대학 Fulton Recital Hall에서 열렸다.

이 날의 행사는 Lincoln Trio의 cellist David Cunliffe씨가 일일상 작곡가들과 대화 등 인터뷰를 하고 연주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1등상을 받은 박용빈씨는 모교인 서울대 음대에서 작곡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작곡 활동 중하다가 현재 독일 뮌헨에 유학 중이다.

2등상의 David Hier씨는 캐나다 Toronto의 McGill대학에서 작곡을 공부(석사과정)중이며 3등상을 받은 양희영씨는 University of Cincinnati에서 작곡으로 박사과정 중이다.

세종상은 국제 작곡경연대회로 세종문화회(회장 주영태)가 주최한다.

준비위원장인 Chicago 대학의 저명한 작곡가 Shulami Ran 교수, 심사위원은 Younghui Paugh-Pann(독일 Bremen 대), Jan Radzyski(오하이오 주립대), Shih Ihi Chen(Rice 대, Houston, TX), 김희정(Univ. of

↑수상자의 Lincoln Trio, 왼쪽부터 양희영(3등), 박용빈(1등), Desiree Ruhstrat, Marta Aznavoorian, David Hier(2등), David Cunliffe, Shulami Ran 교수.

→연주회 후 Shulami Ran 교수 부부의 루시 박 사무총장이 담화 중이다.

California at Santa Cruz, CA), 이진용(한국예술종합대학과 겸 서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music director) 교수 등이 수고하셨다.

세종상 국제 작곡경연대회는 나 장단을 이용한 작곡경연대회를 이끈 작곡가라 복직이다. 지난 2012 경연대회는 ▶ 제헌절, 마이클먼, 쥘로프를 위한 삼중주나 이중주곡 ▶12악악 ▶한국 전통곡의 멜로디



나 장단을 사용하지 않고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의 10가지 곡종 하나를 이용, 국적이나 연령에 제한없이 응모할 수 있었다. 세종문화회의 웹사이트에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생애지야 과 명세서 등 10여 종의 한국 유형

연주자들의 레코딩과 곡 해설이 있다.

(<http://www.sejongcultural-society.org/composition/current/music.php>)

지난 해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38명의 작곡가들이 응모했다.

이 날 연주회 곡들은 Ein klarer Klang(박용빈, 정성곡을 주제), Song of the Night (David Hier, 정성곡을 주제), The Birds(양희영, 새 단명을 주제)로 모두 피아노 트리오곡들이었다.

1등상을 받은 박용빈 동문은 "나를 위한 시향악기들이 낼 수 없는 독특한 소리로 연주해 줄 생각이 가장 있었는데 마침 세종상 경연대회를 계기로 곡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양희영씨는 "지난 2회 대회에서 장미라, 이번에는 3등을 했는데 이 대회 참가를 계기로 주로 한국적 주제의 작곡을 배우고 싶어서 응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제를 감사를 드린다."

David Hier씨는 "McGill대 작곡과 교수로부터 이 대회에 관한 정보를 받고 한국음악을 공부해 곡을 썼다. 대회에 참가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주축회에 감사드린다.

세종문화회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주류사회에 알리기를 사명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서양의 대중을 통해 보여주고 미국의 문화권에 우리의 문화를 심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 = 세종문화회 사무총장 루시 박(의대 69), 사진 = 세종문화회 이사장 김호범(상대 69)>



↑Chigo 대학 Fulton Recital Hall에서 열린 이날 연주회에서 Lincoln Trio 멤버(바이올린의 Desiree Ruhstrat, 피아노의 Marta Aznavoorian, 첼로의 David Cunliffe)들이 연주에 앞서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각 곡의 연주에 앞서 Lincoln Trio 멤버인 첼리스트 David Cunliffe씨가 양희영 작곡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주를 맡은 Lincoln Trio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하며 현대 음악가들의 연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Shulami Ran 교수의 Soliloquy와 Jennifer Rigdon의 Fiery Red도 연주했다.\*\*\*

문학시대/Acro광장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



민경훈(법대 78)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유일의 수팔은 왕 중에 왕 노릇을 해오...
정기 울...
"집이 곧 국가"라고 회의를 프...

아메리카에 탐험대를 파견해 비...
시사미외 장을 펼쳤던 그는 두 번...

그녀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 요소를 거...

그러나 그의 증손자 무리 15세 나...
이 나이 아이들이 먼저 죽는 바...

부모와 형제의 근분 원인은 과...
도 때문이었다. 이 일과 관련된...

이렇게 오랜 세월 권좌에 있는...
물론 당시 권좌에 오른 자들은...

B형간염과 아무 증세없는 간암



차인엽(의대 76)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12년 전 일이다. 53세의 여자...
손녀님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

환자가 B형 간염 보균자가 때...
문은 간 기능(AST, ALT)검사는...

환자가 평소, 주치의의 나와 소...
견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평소...

정상 환자는 1년에 한 번의 검사...
하기를 원했다.

이런에도 알과 태아 단백 검사...
를 뺀 나머지 간 기능은 정상으...

환자는 대담했다. "지난...
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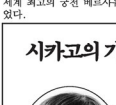
환자가 B형 간염 보균자가 때...
문은 간 기능(AST, ALT)검사는...

환자가 평소, 주치의의 나와 소...
견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평소...

그때도 환자는 눈물을 머금었...
다. 나는 환자를 잘 타이르고...

환자는 대담했다. "지난...
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시카고의 가을 오감(五感)



노재원(문리대 82)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카고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
다. 오 여섯 기운이 평년보다...

아침이면 갈을 걸려내 밧시...
떨어진 낙엽이 하루가 다르게...

시카고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
다. 오 여섯 기운이 평년보다...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시카고의 가을은 눈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다. 이따금...



관악새대/Acro광장<박 변호사의 영화 이야기-10>

# 알송달송 추상화같은 Picnic at Hanging Rock

박준철(문리대 79) 변호사(CA)

이 영화는 피크닉을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 여학생들과 한 명의 교사와 소제로 한 영희의 미완 그랜드 추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촬영년도도 필요하다. 영화 비평가들은 좋아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많은 비평가들이 호평을 했다고 한다). 왜가 필자조차도 모른다. (실제로 영화는 필자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았다.)

●영화의 배경-배경은 1900년 후주의 Victoria 주 Woodford라는 조그마한 사립 여학생 기숙학교. 명칭은 대학이던 대학이던 고등학교였다고 분명히 알려주는데 1900년 12월 14일 토요일 벨런던 데이 이틀 정도였던(그런데 실제 1900년 2월 14일은 토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다).

가든 Sara가 자기 가족을 만나 봐야 된다고 하는 맥에서 나온 에디스가 하지한다(이게서 보통 영화는 전 부분을 걸쳐 이인가 sensuall 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느껴질 정도로 보인다. 드디어까지 못 봤을 정도로 드디어까지 못 봤을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는 Miranda는 그녀의 실명을 암시하는 대사를 보인다. "난 여기 고대되고 있지 않을 거야. I won't be here much longer.")

Hanging Rock은 수천 수백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하여 생긴 거대한 바위굴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 실제 존재하는 곳으로 벨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이다. 특이하게 북극기가 사막이던 벨런던으로 일기 이따유되는 장소다. 학생들과 교사는 온갖 도박과 일기 이따유하는 복싱을 한다. 교사 Miss McCraw의 시사와 그녀의 사제사 목욕이 12시에서 밤중으로 변주...

●영화의 비주-위 있고 있던 중세 여성들이 바위를 보고 크리크를 밟아 보겠다고 하자고 했다고 한

George Zanjir가 연주하는 푸마니의 전통 플루트 음악 (Doira: Sus Pe Gulea Dealului and Doira Lu Petru Iuc)와 다른 고전 음악가들 배경에 합친다. 음악이 아주 잘 어울린다. 어떤 음악들을 배경으로 Hanging Rock 들은 때로는 신비하고, 때로는 강장하고, 때로는 음산하다. 음악 들을 듣고 싶다면 분명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Hanging Rock-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는 Hanging Rock. 조차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바위로 향하던 그들을 두 청년이 목격한다. 하나는 교양있는 영국 출신 청년 Michael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호주 교사이자 출신으로 별로 배우이 없는 Albert다.



# Success

동문 시 감상

김태환(법대 46)PA

## 성공

물어봐도 많고 성공했다며 자랑이 많아졌다 해서 성공했다 하디나

후세들 가슴에 애국정신 일깨우고 스승의 높은 말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세상에 일조하는 것

작은 봉사가 큰 평화를 이루고 영원한 이의 맡겨진 기쁨이 우리 나에게는 길에 뻗어있어 비추리

한 번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성공이 되지만은 않으니 그 때 성공을 받으라리\*\*\*

영원한 Albert는 안 따라오려 하다가 함께 수색에 나선다. 왜 Michael은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생물을 찾으려 하는가? 왜 Albert는 거부하다가 함께 수색하

을 학교로부터 철학이고 Irma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학교 장교로 Sara가 수업료 기간 안 하고 고아원으로 다시 보낼 거만 피우충들을 한다.

# “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몰라도 놀라운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다. 세 여학생은 Miranda, Irma, Marjorie라고 하는 아이이다. Sara는 교사이자 변호사이다. 그녀는 고대되고 있지 않을 거야. I won't be here much longer.”

●영화의 비주-위 있고 있던 중세 여성들이 바위를 보고 크리크를 밟아 보겠다고 하자고 했다고 한

“비록은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몰라도 놀라운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Everything begins and ends at exactly right time and place)."

bert는 거부하다가 함께 수색하... Michael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몰라도 놀라운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Everything begins and ends at exactly right time and place)."

이 영화는 피크닉을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 여학생들과 한 명의 교사와 소제로 한 영희의 미완 그랜드 추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벨런던 데이 아침에 영희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여 주면서 그녀는 얼굴을 close up으로 보여 주려는 듯 대안한 미소였다. 같은 피부와 잘 생긴 얼굴은 그야말로 이질적이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비너스의 탄생' 이란 그림에 나오는 비너스의 똑같다. 아마 배우를 고를 때부터 눈을 배우를 찾았으리라. 이 날은 학생들 Hanging Rock이라는 곳으로 피크닉을 떠나는 날. 그런데 Miranda와 친한 Sara는 이 피크닉에서 제외된다. Sara는 교사이자 변호사이다. 그녀는 고대되고 있지 않을 거야. I won't be here much longer.”



그런데 Miranda의 말에서 이 둘의 사이가 lesbian인가 아니면 둘 사이의 Sara가 Miranda를 성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의심을 살게 가지게 만든다.

“사랑, 난 너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해 (You must learn to love someone else apart from me, Sara).”

자기 가족들이 재미있다면 어떤

“모든 것은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몰라도 놀라운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Everything begins and ends at exactly right time and place)."

Michael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몰라도 놀라운 숫자의 인간들이 아무 목적이 없다” “모든 것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Everything begins and ends at exactly right time and place)."

이 영화는 피크닉을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 여학생들과 한 명의 교사와 소제로 한 영희의 미완 그랜드 추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후주 개봉 당시 영화 호평이다. 필름은 보았지만 여학생들이 수업료 기간 안 따라오려 하다가 함께 수색에 나선다. 왜 Michael은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생물을 찾으려 하는가? 왜 Albert는 거부하다가 함께 수색하

영원한 Albert는 안 따라오려 하다가 함께 수색에 나선다. 왜 Michael은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생물을 찾으려 하는가? 왜 Albert는 거부하다가 함께 수색하

영원한 Albert는 안 따라오려 하다가 함께 수색에 나선다. 왜 Michael은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생물을 찾으려 하는가? 왜 Albert는 거부하다가 함께 수색하

영원한 Albert는 안 따라오려 하다가 함께 수색에 나선다. 왜 Michael은 자기 일도 아닌 다른 생물을 찾으려 하는가? 왜 Albert는 거부하다가 함께 수색하

### 아메리칸 드림 50년<4>

#### 최용완(공대 57) 미주 동창회가 본선행위 시인·수필가

미국은 자동차 문화와 집집마다 송가리 구비하고 있다. 농촌의 풍경을 짐승들의 침입이 잦은 곳에 놓기는 개구시동물이다.

▶**숙부님의 결혼** = 한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여름방학을 맞아 대륙으로 여행하러갔던 숙부님은 꽃을 찾던중이었다. 숙부의 권유로 친구네로 숙부가 결혼하던 시기에 집을 흔들어주었다 하며 먼저자리라고 했다.

어느 날 다시 숙부가 갑자기질러져서 넘어지는 순간 찰스부아 재가 병에 걸렸었다. 그 후 충격을 받은 숙부는...

나름 잘 놀라서 후난 내가 맞은 것은 아닐까. 찰스 부아 재가 맞은 것은 아닐까 놀라보고 있다. 다행히도 흉상은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편함도 넓어져 왔다** = 편편함도 점점 넓어져 왔다. 편편함도 점점 넓어져 왔다. 편편함도 점점 넓어져 왔다.

▶**일본 유학생의 비극** = 유학생의 비극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 유학생의 비극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

▶**수출로 시작된 경제적 역사** = 수출과 제조물 산출의 발달 초미는 미망하는 한후민을 돌아보는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시베리아, 호주대륙, 우린의 열연인 북반구 대륙에서 원주민을 돌아보는 땅을 빼앗고 세대를 나락시켰다.

▶**미국·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 = 카루비로의 민중이 사물을 지배하는 근대 역사가 되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무기 생산국으로 최대강국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1970년대 중동지역의 기름 분쟁은 우리 한민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중동의 건설업에 진출한 한국 정부는 미국 건설사와의 계약을 위해 미주에 떠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숙부님의 결혼** = 한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여름방학을 맞아 대륙으로 여행하러갔던 숙부님은 꽃을 찾던중이었다. 숙부의 권유로 친구네로 숙부가 결혼하던 시기에 집을 흔들어주었다 하며 먼저자리라고 했다.

▶**일본 유학생의 비극** = 유학생의 비극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 유학생의 비극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

▶**수출로 시작된 경제적 역사** = 수출과 제조물 산출의 발달 초미는 미망하는 한후민을 돌아보는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시베리아, 호주대륙, 우린의 열연인 북반구 대륙에서 원주민을 돌아보는 땅을 빼앗고 세대를 나락시켰다.

▶**미국·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 = 카루비로의 민중이 사물을 지배하는 근대 역사가 되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무기 생산국으로 최대강국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 “처음 미국은 친구가 만나자고 해 어디냐고 했더니 뉴욕이랑기에 미니애폴리스와 뉴욕은 서울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거러라고 하자 실망만 하고 돌아갔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소생한 국민연회** (national rifle association) = 미국의 사냥에 막대한 정치력을 가진 것이다.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 CA 남가주

## 건축/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태(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9-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3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홍(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광환 공인회계사  
이광환 (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진(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cas@gmail.com  
3440 Wilshire Blvd., #5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사과방언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9-732-0433  
877 W. Fremont Ave. #18 Sunnyvale  
CA 94087

## 리태일(리)/보석/부동산

세계보석  
김광철 (통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 B LA, CA 90014

Team Spirit 부동산  
(Investment & Development)  
이홍대(간대 69) 714-336-0524  
30 Corporate Park #207 Irvine CA 92606

## 운동/유통/유통/연계업체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도매  
이병훈(상대 53) (562) 692-0609  
9615 S. Norwalk Blvd., #9B,  
Santa Fe Springs CA 90670

## 연계사업/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 약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성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안내과 · 헬력내과  
정수만(약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식품/음식점

자전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비영리법인/해당/크지/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장진수(공대 56)  
(650) 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 클리닉/교회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9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 리 카리나 한인교회

리 카리나 한인교회  
박근호(공대 65)  
816-790-783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0011

## 수역학/동물방역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36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범(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서비스/개업/경영/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우주개발/기술

TAVKO ENGINEERING, INC.  
Development, Installation & Repair of Automat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호(공대 64)  
1484 Maple Street #P.O. Box 4004  
Cupertino, California 95014  
Telephone 714 962-2200 Fax 714 962-2202  
http://www.tavko.com

## 복가주

##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 300 Mt. View CA 94043

## GA 조끼아

Auto Plaza Group, INC.  
이양진(공대 76)  
404-579-826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종(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 NJ-NY 뉴욕/뉴저지

## 공인회계사/리태일

Changsoo Kim, CPA P.C.  
\* 김장수(약대 64)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희(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R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영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New York Golf Center  
이건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부동산/장계

Evergreen Realty  
이재훈(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 OR 오레곤

Filon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 7416 Beaver ton OR 97007

## PA 필라델피아

## 동물방역/건축/실업

GREGORY W. JOEL D.V.M.  
MICHELLE CAMPBELL, V.M.D.  
MICHELLE CAMPBELL, V.M.D.  
주거리(수의대 68)  
COTYMAN AVENUE HOSPITAL  
1532 COTYMAN AVE  
PHILADELPHIA, PA 19104  
Telephone: (215) 942-9032  
http://www.cotymanhospital.com

Timothy Haas & Assoc.  
손재홍(생물대 77)  
494-342-0200  
593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04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 TX 텍사스

W. Kwon Chhin  
25C  
6400 Industrial, Inc.  
18380 City Road, Suite 100  
Houston, Texas 77058  
Phone: 713-669-0344  
Fax: 713-669-0344  
Tel Fax: 713-669-0311  
http://www.wkchhin.com

## MD, VA 워싱턴DC

## 부동산/장계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ens Ford Rd. Clifton VA 20124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학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이준영 차고(치대 74)  
(301) 220-2828 (301) 926-9992  
8201 Greening Rd. Suit-10, College Park MD 20740  
869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20878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이해·특종·독감 등  
기사·동향·특이한 모든 문장  
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는 연  
재는 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만 가지치게 정치사회적, 이념  
적으로 편향된 내용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다소 구제해야 있습니다. 또한  
중재적으로도 너무 지루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방은 특  
집이 아닌 경우 A-4(Letter) 용  
지 3-4매 이하로 일괄사건과 연  
락자를 첨부해 주십시오.

▶My Journey to America 는 동  
북한의 지난 온 파카를 그리는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용환(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  
신의 자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룰 기회 이용하여서  
바랍니다. \*\*\* <편집후기>

**‘편집후기’**

◆역사지(地地地) = 미국  
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복잡다단하  
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사  
회와 이념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우  
대 그쪽 사에서 종종 커다란 갈  
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나오는 다른,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  
다. 흔히 나오는 다른,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척해버  
리거나 심하면 아예 적으로 취급해  
버리는 태파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  
다. 반면에 그런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받아들여줄 수도 있다는 포용  
의 태파적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  
기 위해서라면 비록 일부라도 포용  
적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  
일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도  
해파의 보람’는 역사지(地地地)  
의 고사성에도 이를 위한 것이  
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사실에  
게 직접 논쟁의 경우가 닦다던 여  
떨까요. 온연종 무의식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자존심에 의  
해 의식적으로도 태파적 접근  
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  
니다. 본 동창회보 편집에 있어서  
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2면에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  
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편집후기>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승우(문)·김수성(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흥락  
(공)·오홍준(지)·이영택(공)·이건우(농)·송윤열(문)

명예회장: 김은홍(상)

**제12대 회장: 오인환(문)**

지기 회장: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당 부회장: 이재진(문)  
문리주부회 당장 부회장: 공순희(문)  
관악세대 당장 부회장: 이현정(사회)  
사회봉사 당장 부회장: 이명

상임고문: 박승우(문)·이영택(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정명희(공)  
총무국장: 황윤환(의)  
조직국장: 박복자(의)  
재무국장: 유영열(자연)  
광고국장: 함윤선(의)  
시무국장: 김정식(농)  
상임국장: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오인환(문)  
주필: 박 순(법)  
편집위원장: 장경태(사)  
편집주간: 이기준  
편집위원: 환경의(공)·서완석(의)·이완주(상)·이해석(상)  
정명희(공)·김정식(농)·정성택(의)·함은선(의)  
이내림(공)·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이항열(법)**

논설위원: 김일환(의)·고병환(법)·조종훈(의)·이재진(문)  
최종원(공)·정홍택(상)·윤상래(수의)·김광수(의)  
자민영(의)·이석규(문)·김영환(경)·유재홍(문)  
강역정(법)·허종훈(사회)·민경훈(법)·이영택(경)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서정민(공)·이민연(법)·윤상래(수의)  
김지영(사)·신용남(농)·함은선(법)

**감사: 박영일(농)·주기목(수의)**

\*사건·취재·기자직서·편집·디자인은 이기준 편집주간  
snsuusaalk@gmail.com. snsuusaal2@gmail.com  
\*회보 =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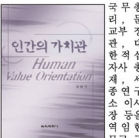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기주	회장 자기회장	김상찬(문리 65) 714-503-1172 sckim1@yahoo.com
북기주	회장 자기회장	이창우(문리 72) 408-891-2000 president@snuaa-nc.org 박재래(간호 73) 831-818-2959 achuere@hotmial.com
뉴욕	회장 자기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4-2989 sangparkny@gmail.com
뉴저지/뉴데일	회장 자기회장	장승언(음대 76) 978-621-9434 soohnee@comcast.net 이경애(인문 93) 81-818-2959
달라스	회장 자기회장	최 인(공대 70) 817-919-3057 youchoye@bogloba.net 오기영(공대 73)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자기회장	포함삼(치대 58)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미네소타	회장 자기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8-0040 woodlaw@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자기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eungins@gmail.com 홍희수(자연 87) 858-259-5273 hdunson.cho@hotmail.com
시카고	회장 자기회장	한의일(공대 62) 312-213-8557 ayul1han@gmail.com 김호범(상대 68) 847-657-8919 hkim@mcogang.com
에리조나	회장 자기회장	오윤환(문리대) ynhoh@atheon.com
앨라배카	회장 자기회장	윤재중(음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백석연(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자기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오하이오	회장 자기회장	송원길(외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워싱턴 DC	회장 자기회장	함은선(문대 77) 703-969-3006 samilaurl2010@gmail.com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tae@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자기회장	김무용(음대 64) 253-228-4396 ctzno2@gmail.com 수석총무 위원장(공대 84) 425-444-3899 heo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부회장	배유한(공대 73) 801-474-1945 you.baee@yah.com
조지아	회장 자기회장	김동현(상대 68) 215-459-3707 215-828-9011 강창석(외대 73) 314-363-8396
중부 텍사스	회장 자기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chrisie@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부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tjnj.com 유기봉(문리 64)
플로리다	회장 자기회장	박학익(외대 64) 954-599-3452 changikpark@dksda.net
캐롤라이나	회장 자기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_lung@duke.edu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1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자기회장	김경애(공대 75) 865-974-5292 kkim@utk.edu
하와이	회장 자기회장	김용수(수의 75) 808-394-2369 ykim@hotmail.edu
하일랜드	회장 자기회장	이승강(외대 70) 918-687-1115 918-390-9178 wonjnhad@gmail.com 박혜송(음대 68) 913-481-1946 hyesong@e@yahoo.com
휴스턴	회장 자기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부회장	김홍자(음대 62) 778-365-6659 hongjakim@shaw.ca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부회장	조홍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a@hotmail.com

동문 신간

■ 인간의 가치관

-鄭元植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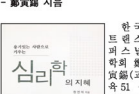


이 책은 기독교보다 1세대를 앞선 철학한 인문학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이 책은 가치 또는 가치관이란 독재대상(사람, 사물, 현실, 사건 등)에 대해 진로하거나 혐오하는 태도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근원적 심리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용기를 잃은 사람으로 카우는 심리학의 지혜

-鄭賢鎭 지음



이 책은 예술미 심리학의 관점(목욕, 전차, 현상학, 대인관계, 가족, 학교,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책은 예술미 심리학의 관점(목욕, 전차, 현상학, 대인관계, 가족, 학교,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연설기에 대하여

-송美雨 지음



이 책은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설의 기술을 설명한다.

이 책은 기독교보다 1세대를 앞선 철학한 인문학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이 책은 법정 문헌, 회회 문헌, 유물 등 다양한 용품이 있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법원에서의 실용적이며 이론적이며 실용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교편이다.

■ 정치학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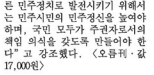
-李相福 지음



이 책은 정치학의 기본 구조와 한국정치의 개관,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 등 서 가재로 다룬다.

■ 북미 인디언의 민요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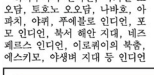
-李謙熙 지음



이 책은 북미 인디언의 민요를 찾아서 서 가재로 다룬다.

■ 국제기구 멘토링

-鄭熙植 지음



이 책은 국제기구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멘토링의 기술을 설명한다.

■ 연설기에 대하여

-송美雨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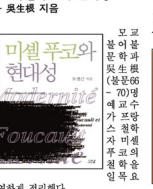
이 책은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설의 기술을 설명한다.

이 책은 기독교보다 1세대를 앞선 철학한 인문학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이 책은 법정 문헌, 회회 문헌, 유물 등 다양한 용품이 있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법원에서의 실용적이며 이론적이며 실용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교편이다.

■ 미셸 푸코와 현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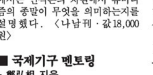
-吳生煥 지음



이 책은 미셸 푸코의 사상을 소개하고 그의 철학을 설명한다.

■ 히스토리야 노바

-朱永哲 지음



이 책은 히스토리야 노바의 철학을 소개하고 그의 철학을 설명한다.

■ 국제기구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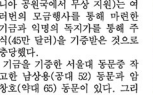
-鄭熙植 지음



이 책은 국제기구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멘토링의 기술을 설명한다.

■ 연설기에 대하여

-송美雨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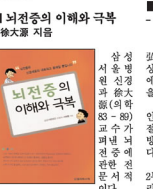
이 책은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설의 기술을 설명한다.

이 책은 기독교보다 1세대를 앞선 철학한 인문학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이 책은 법정 문헌, 회회 문헌, 유물 등 다양한 용품이 있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법원에서의 실용적이며 이론적이며 실용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교편이다.

■ 나만의 비전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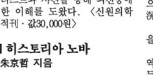
-송美雨 지음



이 책은 나만의 비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전경영의 기술을 설명한다.

■ 朝鮮前易哲學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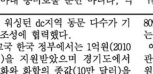
-李謙熙 지음



이 책은 조선 전기 학자들의 내역과 철학을 소개하고 그의 철학을 설명한다.

■ 국제기구 멘토링

-鄭熙植 지음



이 책은 국제기구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멘토링의 기술을 설명한다.

■ 연설기에 대하여

-송美雨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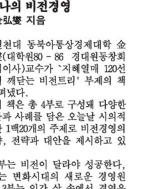
이 책은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설의 기술을 설명한다.

이 책은 기독교보다 1세대를 앞선 철학한 인문학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이 책은 법정 문헌, 회회 문헌, 유물 등 다양한 용품이 있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법원에서의 실용적이며 이론적이며 실용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교편이다.

■ 나만의 비전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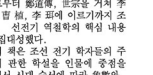
-송美雨 지음



이 책은 나만의 비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전경영의 기술을 설명한다.

■ 朝鮮前易哲學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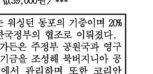
-李謙熙 지음



이 책은 조선 전기 학자들의 내역과 철학을 소개하고 그의 철학을 설명한다.

■ 국제기구 멘토링

-鄭熙植 지음



이 책은 국제기구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멘토링의 기술을 설명한다.

■ 연설기에 대하여

-송美雨 지음



이 책은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설의 기술을 설명한다.

Korean Bell Garden

미 동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Korean Bell Garden은 Meadowlark Branch Garden의 확장판이다.

이름을 따라가면 하모니 울림이 아름다운 공간과 상징적 담이 펼쳐진다.



80%는 학생들의 기증이며 20%는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뤄졌다.



##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oytrave.com

888-883-7460  
888-883-7474

facebook.com/joytrafoods  
twitter.com/joytrafoods  
youtube.com/user/joytrafoods

www.toptravelusa.com

1991년 탄생한 탐여행사가 22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탐여행사는 사프여행사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특별한 대접의 따뜻함을 뜻하고  
청색은 푸른 바다와 강을 뜻하며  
녹색은 푸른 땅과 숲을 뜻합니다.

탐여행사  
**TOP TRAVEL**

탐여행사는 미국요양선의 새로운 유망 회사인 에델라인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탐 여행사는, 시애틀에서 샌디에고까지 200 여척의 여객선을 운영하며 20여 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베사토 (베사토) 7021 Blue Ridge Blvd, #100, Alexandria, VA 22304 T. 703-204-9008 / F. 703-941-2929  
메릴랜드 (메릴랜드) 7505 S. Braddock Rd, Centerville, VA 20121 T. 703-943-2322 / F. 703-943-7233  
매릴랜드 (메릴랜드) 8917 Baltimore National Pike, Beltsville, MD 21051 T. 410-480-9100 / F. 410-480-9103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www.duo.co.kr

# 좋은 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솔러지가 인정하는 프라이빗 브랜딩: 규모와 인력,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배려와 케어를 사제: 전문적이고 인성 있는 케어를 사제가 소중히 여기는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고객에게도 체계적인 해당 프로그램으로 이상향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회원에게: 한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년 6개월이 넘는 최장 중개장 및 상담 서비스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9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 213-383-0077 ☎ 201-242-0505

##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NEW YORK  
www.snuany.com

### 2013 뉴욕 동창회 송년회

뉴욕동창회 동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동문들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살아가는 애기도 하며, 즐겁게 춤도 추며 한 해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부부동반하시어 즐거운 동문간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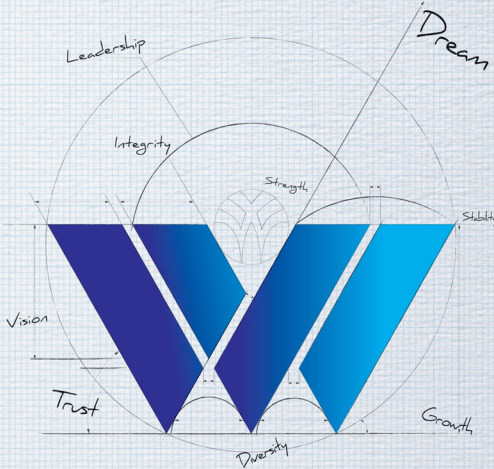
▶ 때 : 2013년 12월 14일 (토) 6 : 00 PM  
▶ 곳 : Double 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NJ

뉴욕 동창회장 박상원 사무총장 금영천

www.wilshirebank.com



# 고객의 꿈과 희망을 담아...



## 새 얼굴, 새 이름, 새로워진 월셔은행!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새 희망을 그려가겠습니다.



유재환 (상대 67)